



서울대학교 同窓會報

동창회 지표 • 참여 • 협력 • 영광

發行人 金在淳
編輯人 鄭宗澤
印刷人 金嘆宰

發行所
서울대학교總同窓會
121-040 서울特別市 麻浦區 桃花洞18-2
☎ 702-2233~5 · FAX: 703-0755

銀行계로番號 7500875
對替口座 010017-31-0621565

제 217호

1976. 4. 13 등록번호(서)라-137호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1996년 4월 1일

[1]



총동창회 “새 출발”

관측추천

먼저 金在淳회장의 제2기 출범을 축하하고 새로 준회원으로 가입한 약 4천여명의 단기연구교육과정 수료동문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어느 조직이든 그 조직이 활성화되고 제대로 일을 하느냐 못하느냐는 전적으로 리더의 역량과 열성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더군다나 친목단체인 동창회는 일을 하자면 한없이 일을 할 수 있고 그 반대로 안해도 그대로 명맥은 유지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지난번 정기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현회장을 재출범시킨 것은 우연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이유와 뜻이 담겨져 있다. 계속 일을 잘 해 달라라는 동문들의 염원과 기대가 담겨 있음이다.

사실 지난 2년동안 우리 동창회는 괄목할 만한 발

전을 해 왔다. 자화자찬이 아니라 현실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참여도의 바로미터가 되는 회비수입이 93년의 3억3천여만원에서 94, 95년에는 6억6천만원, 6억9천만원으로 늘어났고 올해는 9억1천만원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3대과제 10대 실천사업을 펼쳐서 95년 모교 재학생과 교수에게 2억6천만원의 장학금과 연

남은 것은 「전진」뿐이다

구비를 지급했다.

모교의 각종 행사에 회장단이 적극 참가해서 모교와의 유대를 강화했고 친목등산대회, 음악회, 명화감상회 등을 열어서 동문간의 친목과 참여도를 제고시켰다.

서울대인의 대변지인 본 「동창회보」도 지면을 28면으로 늘렸고 5만부이던 발행부수를 작년에는 6만부,

금년에는 7만부로 늘릴 계획이다. 물론, 이같은 발전은 지난 27년동안 본회를 이끌어 온 역대회장단의 노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만족할 수 없다. 당장 금년의 개교 50주년 기념사업과 특지장학금제도 확립 등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

이미 동창회 활성화의 불은 당겨졌다. 앞으로의 과제는 이 열기를 어떻게 지속시키면서 본회가 회원을 위해서, 모교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제2, 제3의 불을 당기느냐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金在淳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이사들 그리고 모든 동문들의 새로운 각오와 배전의 노력이 필수적이다. 더군다나 이번에 새로 참여하게된 단기연구교육과정 수료 동문들도 동창회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제 모든 여건은 갖추어졌다. 남은 것은 오로지 「전진」뿐이다.

(應)

96년 정기총회서 金在淳회장 재선출

단기과정 수료자도 준회원, 사무처장은 사무총장으로...회칙개정



金在淳회장이 창학정신의 실현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역설했다.

본회(회장 金在淳)는 지난 23일 신라호텔 2층 다이너스티 홀에서 신입회원 환영회 겸 96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金在淳회장, 鄭宗澤상임부회장을 비롯한 본회 회장단과 각 단과대학(원) 동창회장, 金春秋독일지부 회장, 李基恒네덜란드지부 부회장, 任漢慶미네소타지부 총무 등 해외지부동문이 참석했으며 모교 尹天柱·權彝赫·趙完圭전임총장, 鮮于仲皓총장, 崔松和부총장 등 보직교수 및 동문 6백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룬 가운데 1부 「참여의 장」, 2부 「협력의 장」 「영광의 장」 순으로 진행됐다.

金회장은 인사말에서 「우리들의 조국을 따뜻한 나라, 힘있

는 나라,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통일된 나라로 만들어 갈 책임이 22만 동문에게 있다」고 역설하고 「모교의 창학정신인 「진리는 나의 빛」 그 목표를 향해, 그 정신의 실현을 위해 동문들의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鮮于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서울대학교법의 제정은 모교가 연구중심의 대학이 되고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서 외국의 대학과 경쟁해 나가기 위한 기반」이라고 설명하고 「세계속에서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발돋움하는데 동문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모범지부 표창에서 해외지부상은 태국지부(회장 金

錫健), 지방지부상은 울산지부(회장 金石基)·광주지부(회장 吳炳文), 직장지부상은 (주)경방지부(회장 金基中)·춘천교대지부(회장 李亨峻)가 각각 수상했으며 유공동문 표창에서 국민제휴카드 사업에 협조한 宋準康삼표레미콘 사장, 金鍾國OB씨그램 전무, 尹世榮서울방송 회장, 李仁珩부산매일신문 사장이 수상했다.

또한 95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李靑堧사기념관 개관식 흥상제작에 도움을 준 趙重勳대한항공 회장과 동창회관 관악홀 시설보수에 협조한 孫京植제일제당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趙完圭전임총장의 신입회원 환영사, 올해 졸업한 홍기만동

문의 답사에 이어진 안전심의에서 95년도 결산보고, 감사보고가 통과됐으며 임원개선에서 만장일치로 金在淳회장을 제16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또한 감사에 李基雄, 方孝宣동문을 유임시키고 회장단 선임은 金회장에게 위임했다.

한편 회칙 제2장 제5조 2항의 「준회원은 각대학(전신포함) 및 대학원을 중퇴한 자로 한다」의 규정을 「준회원은 전신을 포함한 각대학(원) 중퇴자 및 단기 연구교육과정 수료자로 한다」로 개정하고 회칙 제4장 13조 2항 사무처 조항중 「총동창회 사무처장은 재단법인 관악회의 사무국장을 겸임할 수 있다」라는 규정중 사무처장의 명칭을 사무총장으로

변경하는 등 회칙의 일부를 개정했다.

李秀滿(78년 農大卒)동문과 김진아(고고미술사학과 3년)양의 사회로 진행된 2부 행사는 음대 재학생들로 구성된 관악5중주단 「카치아」, 증권거래소 洪寅基(60년 法大卒)이사장의 독창, 모교 동아리 민요연구회 「아리랑」, 모교 安亨一(53년 音大卒) 명예교수와 尹賢珠(71년 音大卒)교수의 공연으로 분위기를 고조시켰으며 경품추첨을 통해 행운대상을 수상한 朴英子(50년 師大卒·시인)동문이 경품(대우자동차 티코)을 동창회 사무처에 기증, 동창회에 대한 동문들의 사랑을 다시한번 확인시켜 주었다.(경품 협찬자 명단 5면) (雙)

미술작품

安畢妍作



「만화경」, 천위에 실크스크린, 23X 18X 12m, 1995.

(작가약력 및 인터뷰 25면 참조)

모교 교수에게 연구저술비 6천만원 전달

鮮于仲皓총장·崔松和부총장 취임 축하연 열어



金在淳회장은 개교50주년을 맞아 동문들의 활약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회(회장 金在淳)는 지난 5일 르네상스호텔 다이아몬드볼룸에서 「鮮于仲皓총장·崔松和부총장 취임축하연」을 개최했다.

李世震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李壽成국무총리, 鄭宗澤상임부회장, 權彝赫·金鍾云전임총장, 趙淳서울시장, 李仁濟경기도지사, 孫一根·朴世熙보논설위원, 趙炳華예술원회장 등 본회 회장단을 비롯한 모교 보직교수, 정계, 관계, 재계, 언론계, 교육계 인사 1백여명이 참석해 대성황을 이뤘다.

金在淳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개교 50주년을 맞은 우리 모교가 조국의 운명을 걸머지고 세계의 대학으로 도약해야 할 중차대한 시기에 모교 총장을 맡은 鮮于仲皓교수와 모교 관계자 여러분의 활약에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鮮于仲皓총장은 답사에서 『학문, 민족, 세계의 대학을 목표로 앞으로 4년 임기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金在淳회장과 鄭宗澤상임부회장은 순금으로 만든 행운의 열쇠를 鮮于仲皓총장과 崔松和부총장에게 각각 전달하

고 축하했다.

전임 총장이었던 李壽成총리는 축사를 통해 『鮮于仲皓총장이 부총장으로 있을 때 그의 넓은 식견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었다』면서 『鮮于仲皓총장과 崔松和부총장이 모교를 참으로 큰 나무로 키워서 조국의 내일을 담보하고 더 나아가 국내 모든 대학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본회는 이날 崔松和부총장을 비롯한 任漢淳, 韓啓傳, 蘇光熙, 金光洙, 李正馥교수에게 연구저술비로 총6천만원을 전달했다. (志)

정기총회 경품 협찬해 주신 분

(접수順)

金在淳	샘터사 이사장	「샘터」1년 정기구독권	10매
鄭宗澤	환경부장관	건강팔찌	5개
具平會	무역협회 회장	냉장고	3대
姜信浩	동아제약 회장	음료수	6백캔
尹世榮	SBS 회장	대형칼라TV	2대
朴晟容	금호그룹 명예회장	아시아나 제주항공권	3매(2인1조)
趙南煜	삼부토건 회장	호텔숙식권	5매(2인1조)
張翼龍	서광 회장	보스렌자 신사복	3벌
朴容晟	두산그룹 부회장	와인·위스키	38상자
文大源	코리아제록스 부회장	팩시밀리	1대
姜晉佑	롯데백화점 사장	티셔츠	10벌
金基炳	롯데관광 회장	필리핀 해외관광티켓	3장
金英泰	담배인삼공사 사장	홍삼차	10세트
申熙澈	금강제화 부회장	금강제화 티켓	7장
元容勳	대림통상 사장	리빙스타 압력솔	5세트
柳遠策	한국전자 회장	전자키보드	1대
李大榮	비제바노 부사장	비제바노 신사화	5족
李大遠	삼성항공 부회장	삼성카메라	3대
李世馥	나드리화장품 부사장	나드리화장품	10세트
孫京植	제일제당 회장	제일제당 햄	10세트
卞圭七	LG상사 회장	LG패션 신사복	2벌
安秉鈞	나산실업 회장	여성용 의류	5벌
崔峰植	치과의원장	특허 귀이개	6백개
尹永錫	대우중공업 회장	소형자동차	1대
李乃均	삼화도기 회장	머그잔	5백개
李竣鎔	대림산업 회장	대림오토바이	1대
玄明官	삼성그룹 비서실장	전자렌지	3대
高忠三	대한항공 부사장	제주항공권	3매(2인1조)
陰龍基	현대종합목재 회장	리바트가구	1조
權汝久	LG전선 회장	LG전자렌지	3대
洪寅基	증권거래소 이사장	CD	5장
朴仁均	법창양행 사장	건강책자	5백권
朴秀煥	LG상사 사장	LG세탁기	1대
李琪鍾	두리비전 사장	협찬금	1백만원

1995년도

결산공고

대차대조표

1995. 12. 31. 現在 (단위: 원)

차번	과목	대변
(1,654,406,906)	(자산)	
1,439,451,149	예치금	
600,000	반유음	
22,590,348	미수금	
190,374,138	미수수익	
1,391,271	차량운반구(주1)	
	(부채)	(96,322,199)
	예수금	3,407,944
	미지급금	47,571,255
	수입보증금	2,500,000
	퇴직급여충당금	42,843,000
	(자본)	(1,256,314,289)
	전기이월이익잉여금	1,256,814,289
	당기순이익	301,270,418
1,654,906,906	합계	1,654,406,906

주1) 차량운반구: 구입가격 13,912,696원에서 직접 상각 12,521,425원 감가상각함.

손익계산서

1995. 1. 1부터 1995. 12. 31까지 (단위: 원)

지출지부		수입지부	
항목	금액	항목	금액
간행물비	283,188,481	특별회비	449,170,318
친목사업비	104,628,192	분담금	4,400,000
지원사업비	80,394,258	회비	239,609,930
조직강화비	214,529,814	광고료	250,710,000
회의비	18,075,726	수입이자	137,289,637
전산화기금	25,465,710	찬조금	247,472,737
인건비	120,262,490	신용카드기부금	1,622,165
여비	6,136,533	잡수입	69,910
사무비	14,589,190		
세금과공과	3,899,190		
차량유지비	4,008,160		
보험료	3,540,960		
감가상각비	2,504,285		
퇴직급여충당금	28,410,908		
관악회기금전출	111,012,000		
기금조성추진비	0		
잡비	718,382		
광고선전비	7,710,000		
당기순이익	301,270,418		
합계	1,330,344,697	합계	1,330,344,697

위와 같이 공고함

1996. 3.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장 金在淳

환대원동창회

신임회장에 朴重培동문 선출



신임 박회장은 앞으로도 멋진 동창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環境大學院同窓會(회장 朴亨錫)는 지난 21일 선릉 소재 「대호」에서 96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박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적은 바뀌도 학적은 바꿀 수 없는 만큼 소중한 인연으로 맺어졌으니 주변의 동문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달라」고 당부했다.

林岡源원장은 축사에서 「환대원만큼 산학협동이 절실한 곳도 없다」면서 「모교와의 유대가 좀더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동창회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同會는 이날 고위정책과정 수료생을 준회원이나 특별회원 이 아닌 정회원으로 인정하는 등 회원자격 및 임원선임에 관한 회칙을 개정했다.

또한 종신회비납부제가 실효를 거둬 현재 3천9백70여만원 이 동창회 기금으로 적립됨에 따라 앞으로 장학금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주요안건이었던

임원개선을 통해 신임회장에 朴重培(대한지방행정공제회 이사장)동문을 선임하고 朴亨錫 전임회장을 비롯한 林岡源, 金秉麟, 柳元圭동문을 명예회장으로 위촉했다.

또한 權完, 李載根, 金箕英동문을 부회장에 선임했으며, 감

사에 李道元, 魯滿永동문을 각각 선임했다.

신임 박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자주 만나 기쁜 일, 궂은 일을 함께 나누며 후배를 키워 주고 모교를 도와주는 멋진 동창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대동창회

고시수석 崔琇然동문 공로패 받아

醫科大學同窓會(회장 李吉女)는 지난 18일 하얏트호텔 리젠시룸에서 제4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權彝赫학술원회장, 李純炯학장, 韓鏞徹삼성의료원장등 2백50여명의 동문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許榕, 白相豪동문 등 전임 임원 13명은 이날 동창회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으며 서울강남구지회, 단국 의대지회, 삼성의료원지회, 인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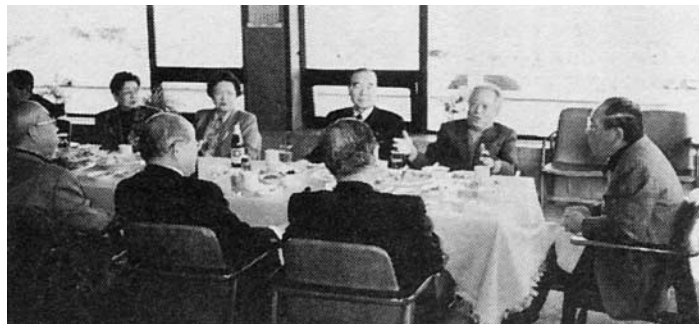
지회는 모범지회로 선정돼 표창패를 받았다.

또한 제60회 의사국가고시에서 수석합격을 해 모교의 영예를 드높인 崔琇然동문에게는 공로패와 함께 李회장이 자비로 출연한 순금 메달이 수여됐다.

참석자들은 95년도 사업보고와 결산보고 및 감사보고를 받고 9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한 후 만찬을 함께 하며 흥겨운 시간을 가졌다. (志)

관악골프친목회

洪性大동문등 4명 회원 가입



골프를 마친 뒤 담화를 나누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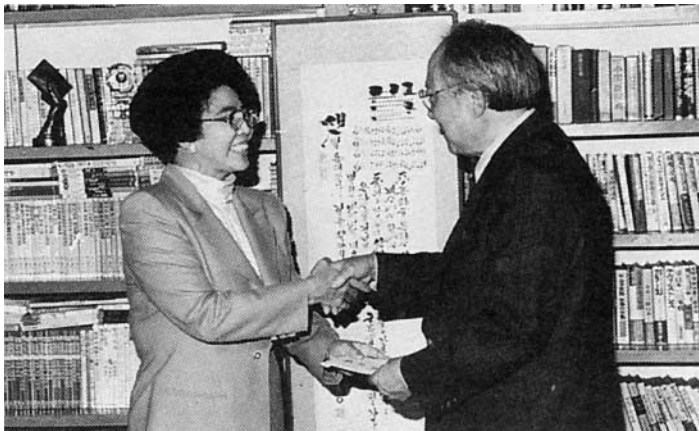
관악골프친목회(회장 崔主鎬)는 지난 15일 뉴코리아CC에서 96년 제1회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본회 金在淳회장을 비롯해 2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대회에서 메달리스트 張翼龍(주)서광 회장, 우승 金讚淑청아치과병원장, 준우승 李根洙(주)서호래저 사장, 3위 朴英俊공인회계사, 4위 河

永基 前한국은행 총재, 5위 金周煥서울중앙병원 치과과장이 수상했으며 감투상은 李禮植극동제약 회장, 행운상은 金泰天 고려증권 전무이사가 차지했다.

한편 이날 대회에서 洪性大 상산학원 이사장, 孫京植제일제당 회장, 尹美子중문민속촌 대표, 尹永錫대우그룹총괄회장을 신임회원으로 영입했다.

李吉女동문 특지장학금 1억 출연



인천중앙길병원 이사장 李吉女(52년 醫大卒·의대동창회장) 동문이 지난 19일 샘터사에서 특지 장학금으로 1억원을 본회 金在淳회장(사진 右)에게 전달했다.

재단법인 관악회의 관리하에

개별 장학회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본회는 이번 출연금을 원금으로하여 李동문이 특별히 지정하는 모교 재학생에게 李동문의 명의로 매년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變)

1995년도

대 차 대 조 표

1995. 12. 31 현재

결 산 공 고

(단위: 원)

손 익 계 산 서

1995. 1. 1부터 1995. 12. 31까지

(단위: 원)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자산		부채	
I. 유동자산	(2,054,470,731)	1. 유동부채	(860,561,860)
(1) 당좌자산	(2,020,971,141)	1. 미지급금	2,971,400
1. 현금	658,535	2. 예수금	8,137,460
2. 예치금	1,757,022,867	3. 관리비에 수보증금	1,793,000
3. 미수금	21,501,070	4. 임대보증금	847,660,000
4. 미수익	241,788,669	II. 고정부채	(373,030,990)
(2) 기타유동자산	(33,499,590)	1. 퇴직급여충당금	9,417,500
1. 채색선납금	33,499,590	2. 지급준비금	112,731,665
II. 투자와 기타 자산	(2,584,672)	3.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250,881,825
(1) 기타자산	(2,584,672)	부채총계	1,233,592,850
1. 전화가입권	2,584,672	자본	
III. 고정자산	(1,609,134,217)	1. 자본금	(713,234,880)
(1) 유형고정자산	(1,609,134,217)	1. 기본금	713,234,880
1. 토지	655,715,410	II. 자본잉여금	(122,573,978)
2. 건물	1,077,258,031	1. 기본잉여금	122,573,978
감가상각충당금	276,237,724	II. 이익잉여금	
3. 구축물	347,831,313	1. 당기결산이익잉여금	
감가상각충당금	247,095,121	가. 수월후반기별이익잉여금	1,520,481,738
4. 기계장비	74,222,072	나. 당기순이익	76,306,174
감가상각충당금	63,030,150	자본총계	2,432,596,770
5. 공구기구와 비품	68,087,400	부채와 자본 총계	3,666,189,620
감가상각충당금	27,617,014		
자산총계	3,666,189,620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I. 매출액		21. 장비	3,019,850
1. 임대수입	164,879,290	II. 영업이익	522,274,675
2. 유지수입	123,390,882	IV. 영업외수익	△234,004,503
III. 관리비		1. 창조금수입	0
1. 급료	81,349,300	2. 동창회전입	90,200,000
2. 상여금	23,842,290	3. 지급준비금환입액	219,785,000
3. 계수당	3,578,330	4. 수입이자	250,881,825
4. 퇴직금		5. 유가증권처분이익	0
5. 퇴직급여충당금환입액	7,823,763	6. 잠수입	325,716
6. 복리후생비	13,740,311	V. 영업외비용	561,192,541
7. 여비교통비	405,680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250,881,825
8. 도서통신비	5,220,570	2. 지급준비금환입액	0
9. 수도광열비	28,842,660	3. 잡손	39
10. 사무비	5,190,650	VI. 경상이익	76,306,174
11. 소모품비	8,604,610	VII. 특별이익	0
12. 세금과 공과	27,550,967	VIII. 특별손실	0
13. 보험료	1,802,521	IX. 법인세차감전순이익	76,306,174
14. 수선비	26,245,110	X. 법인세등	0
15. 감가상각비	53,918,383	XI. 당기순이익	76,306,174
16. 목적사업비	219,785,000		
17. 청소비	1,585,600		
18. 접대비	3,701,610		
19. 광고선전비	0		
20. 지급수수료	6,067,470		

음대동창회

「자랑스런 동문가족패」시상



趙英男동문이 축하를 부르고 있다.

音樂大學同窓會(회장 李誠載)는 지난 1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96년도 정기총회를 겸한 「신년의 밤」행사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李成均학장, 李南洙, 徐友錫, 鄭回甲 전임학장 및 명예교수를 비롯해 金正吉, 金正圭, 林憲政교수, 辛慶昱서울예고교장, 白樂皓음악협회이사장, 金聖泰예음회장, 全鳳楚코리아심포니이사장, 李相萬음악평론가, 黃秉翼이화여대교수, 崔元榮경원대이사장, 李康淑서울종합예술학교장등 2백여명의 동문이 참석했다.

同會는 이날 다섯자매가 모두 모교 음대 출신인 南相水남영나일론회장 부부에게 「자랑스런 동문가족패」를 시상하고 김범기(작곡 4년)군에게 1학기 장학금을 전달했다. 또한 모교

음대를 중퇴한 가수 趙英男, 소프라노 曹秀美동문을 명예회원으로 추대하고 명예회원증을 증정했다.

한편 회원자격과 임원선임에 관한 회칙을 개정하고 올해 사업계획으로 개교 50주년기념 음대동문 교향악단 연주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회원수첩 발간 및 모교 방문행사, 야유회 겸 운동회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농대동창회

회장단 충북지회 방문

農科大學同窓會(회장 朴辰煥)는 지난 2월 15일 충북지회 방문행사를 가졌다.

이번 방문에는朴회장과 李昇九총무이사, 高學均학장이 동행했으며 朴浩乾충북지회장과

趙南爽충북지회 총무를 비롯한 충북거주 동문들이 연회를 열어 이들을 환영했다.

환영연에서는朴회장의 특별강연과 高학장의 모교 캠퍼스 이전 확정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었으며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우의와 친목을 다졌다.

경대원동창회

「명부 공란메우기」벌여

經營大學院同窓會(회장 李燦河)는 지난 8일 「민속관」에서 상임이사 등 20여명의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간사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동창회보 및 회원명부 발간과 장학금 지급 등 동창회 업무보고가 있었으며, 참석자들은 앞으로 동문들의 근무처와 주거지 파악은 물론 승진, 전임, 창업에 관한 정보를 철저히 수집해 경조사함을 챙기기로 했다.

또한 「회원명부 공란메우기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동문간의 상호 정보교환이 좀더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대학원동창회

4월19일 총회 열기로

大學院同窓會(회장 李光魯)는 오는 4월 19일 오후 6시 모교 교수회관에서 96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모교에서 석, 박사 학위를 취득한 동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석자들을 위한 흥겨운 순서도 마련돼 있다.

(※회비없음 전화: 880-5161, 887-8659) (志)

재미총동창회

평의원회에 金在淳회장 초청



참석 대상이다.

한편 李회장(사진)은 지난 3월 19일 본회 사무처를 방문, 동문DIRECTORY제작, 개교 50주년 기념 미주동문 방문단 구성, 제5차 평의원회의 인사초청 등에 관련해 李世震사무총장과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李회장은 「앞으로도 단합과 화합을 목표로 친목사업을 펼칠 예정이며 정관 개정을 통해 이사를 1백여명으로 확대하고 법인 등록을 하는 등 장기적이고 합법적인 단체로 활동하기 위한 위상을 제고 시키겠다」고 말했다.

재미총동창회(회장 李丙俊)는 오는 4월 26일부터 28일에 걸쳐 LA소재 인더스트리 힐스 웨라톤호텔에서 「제5차 평의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평의원회의는 신임이사 상견례를 겸해 동창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각 지역회장과 신임이사들이

남가주지부

신임회장에 朴炳起동문 선임



大卒), 全永均(65년 醫大卒), 卓懿略(62년 商大卒)동문을 선임했다.

또한 총무국장에는 金京茂(75년 工大卒)동문, 사업국장에는 崔在炫(70년 獸醫大卒)동문, 재무국장에는 李種度(70년 工大卒)동문, 감사에는 柳東雄(61년 文理大卒)동문을 선임했다.

신임朴회장은 지난 3월 12일 본회 사무처를 방문, 李世震사무총장과 환담을 나누며 개교 50주년을 기념해 「고국방문단」을 구성하는 등 동문들의 참여를 유도해 동창회 활성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한 오는 9월에는 「현재명박사 추모 음악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雙)

남가주支部同窓會(회장 全熙澤)는 지난 2월 24일 .월서 레디슨호텔에서 정기총회 및 신년파티를 개최했다.

1백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임원개선을 통해 朴炳起(58년 工大卒)동문(사진)을 회장으로 선출하고 수석부회장에 李名相(63년 文理大卒)동문, 부회장에 方錫勳(61년 農大卒), 李在權(61년 法大卒), 張東恩(61년 音

제주지부

모교 신입생 축하연

제주支部同窓會(회장 金炳贊)는 지난 2월 22일 제주시내 데일리 부페에서 96년 정기총회 겸 제주도출신 모교 신입생 축하회를 가졌다.

李昇澤(44년 京城法專卒·前 제주도지사)·金滄玉(55년 農大卒·前 제주대총장)고문, 玄敬大(64년 法大卒·국회의원)등 많은 동문들이 참석한 이날 총회는 지난 1년동안의 실적과 결산보고를 간단히 끝내고 60여명의 신입생을 축하하는데 뜻을 두었다.

金회장은 60여명의 신입생들에게 합격기념품으로 벽시계를 선사하면서 『모교에서 합격하는 것 못지않게 4년의 과정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성패를 가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군산대학지부

李庸顯회장 선출

군산대학支部同窓會(회장 李尙鎬)는 최근 정기총회를 열어 임원개선을 했다. 이에 따라 신입회장에 李庸顯동문이 선출됐으며 총무에 柳金祿동문이 선임됐다.

샌프란시스코지부

춘계골프대회 열어

샌프란시스코支部同窓會(회장 崔慶善)는 지난 2월 24일 Castlwood컨트리클럽에서 춘계골프대회를 가졌다.

이날 골프대회는 지난 3년간의 총영사직을 마치고 귀국하는 李正夏(63년 文理大卒)동문의 환송연도 겸해 동문간의 친목을 다졌다.

의대30회

安秉文동문 신입회장에 취임



의대30회는 모교 장학금 및 발전기금으로 1억원을 출연키로 했다.

의대30동기회(회장 李澤重)는 지난 22일 서초「대원」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신입회장에 安秉文(인천성민병원장)동문을 선출했다.

安회장은 『졸업 20주년을 맞은 올해는 그동안 사회에서의 자리잡기를 핑계로 뒤돌아볼 틈도 없이 바쁘게 살아 온 시간들을 정리하고, 지역사회에서는 의료인으로서 봉사할 수 있는 시기로 생각하여 회원들간의 친목도 새롭게 다지면서 후배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모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부회장에 徐在烈(강서병원 내과), 총무에 金哲右(모교교수), 全鍾敏(운대과)동문을 각각 학내담당과 학외담당으로, 감사에 高永瑾(피부비뇨기과의원장)동문을 선임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임원 선출과 함께 95년도 결산보고와 감사보고, 故 文滄植동문 추모 모

금에 대한 보고도 있었다.

한편 同會는 오는 8월 졸업 2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갖기로 하고 徐廷瑄(모교교수)동문을 학내 위원장, 李澤重(신경정신과의원장)동문을 학외위원장으로 하는 조직위원회를 발

족했다.

또한 모교 장학금 및 발전기금으로 1억원 출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모교 방문행사와 사은회, 가족동반 2박3일 경주기념 여행, 가족앨범 제작 등도 준비하고 있다.

법대17회

새 회장에 金昌根동문 추대



법대17동기회(회장 崔勝民)는 최근 신라호텔 본관2층에서 「동창회의 밤」행사를 개최했다.

95년도 결산보고에 이어 참석자들은 2002년 월드컵 유치위원회 사무총장에 취임한 宋

永植대사로부터 취임인사와 활동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한편 임원개선을 통해 신입회장에 金昌根(제일증권전무)(사진)동문을 선출하고 부회장에 宋基方(변호사), 安文泰(가정법원장), 朴鍾憲(삼양사대표), 李東春(포철부사장), 金基完(대한부동산건설대표)동문을 선임했다.

또한 감사에 金鍾求(서울고검장)동문, 재무에 李忠求(우풍상호신용금고대표)동문, 총무에 白相稷(태양연마고문)동문을

각각 선임했다.

자원공학과

96년 회원명부 발간

자원공학과동창회(회장 柳尙熙)는 최근 96년도 회원명부를 발간해 동문들에게 배포했다.

동문들의 주거지 및 근무처 등의 변동사항을 수정하여 총2백5페이지로 제작된 회원명부는 가로 15cm, 세로 22cm 국판으로 만들어졌으며, 인명색인을 첨가해 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배려했다.

同會는 현재 8백여부를 발송했으며 97년도 회원명부 제작을 위해 동문들의 주거지 및 근무처 등의 변동사항을 수시로 접수하고 있다. (문의전화 880-7219)

금속공학과

4월19일 정총 개최

금속공학과동창회(회장 張炳洙)는 오는 4월 19일 오후7시 논현동 소재 「만리장성」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五商會

5월11일 홈커밍예정

五商會(회장 石豐藏)는 오는 5월 11일 오후 4시 모교 교수회관에서 졸업 30주년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상대를 62년에 입학했거나 66년에 졸업한 동기들로 구성된 同會는 이번 행사에 부부동반으로 참석, 은사를 모시고 흥겨운 시간을 가질 계획이며, 홈커밍 관련 사진과 동문 가족의 사진을 모아 기념 앨범도 제작할 예정이다. (문의전화: 연합무역상사 551-3581) (熙)

법대8회

「2002년 월드컵 유치」논의



법대8회는 월례회에서 월드컵유치와 관련한 사안을 논의했다.

법대8동기회(회장 李相運)는 지난 25일 한남클럽에서 월례회를 갖고 브라질 대사 邊正鉉 동문과 함께 2002년 월드컵축구 유치와 관련하여 브라질 현지의 반응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평균연령이 66~68세인 同會는 회원 중 장관을 7명이나 배출하는등 여전히 활발한 사회 활동을 자랑하고 있다. 이날 모임에서는 각자의 건강유지법을 소개하기도 했다.

同會는 오는 12일 골프모임을 갖기로 하는 한편, 6월경 중국 양자강 주변 관광도 계획하고 있다.

법대9회

북한산 정기산행

법대9동기회(회장 李海元)는 지난달 오찬모임과 골프모임, 산악회 등 모두 3차례의 모임을 가졌다.

오찬모임은 20일 조선히otel 중국관에서 있었고, 산악회는 24일 라마다 올림피아 호텔 커피숍에서 집결한 후 북한산을

오르며 건강과 친목을 도모했다. 또한 29일 골프모임도 12시 30분부터 관악CC에서 있었다.

同會는 매월 넷째주 일요일

정기 산행을 갖는 등 잦은 모임으로 돈독한 동기애를 다져가고 있다.

법대24회

朴敏煥회장 선출



법대24동기회(회장 金學元)는 최근 정기총회를 갖고 신임 회장에 朴敏煥(실크로드양행 대표)동문(사진)을 선출했다.

또한 지난 10일에는 가족 동반 관악산 등산대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20여명의 동문과 가족들이 참석하여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의대25회

졸업25주년 행사 가져

의대25동기회(회장 全淳榮)는 지난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미국 LA근교 인더스트리 힐 웨라톤 호텔에서 졸업 25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미국 거주 동기 40명과 한국 거주 동기 21명이 가족과 함께 참석하여 골프를 즐기는 한편 LA근교를 돌아보며 즐거운 파티를 열기도 했다.

3박4일 동안의 일정을 알찬 행사로 장식한 同會는 오는 2001년의 졸업 30주년 행사를 제주도에서 갖기로 의견을 모았다.

치대14회

회장에 李丙烈동문



무에 金光瑞동문을 각각 선임했다.

한편 지난 14일에는 롯데호텔 프린세스룸에서 金讚淑치대 동창회장을 비롯한 20여명의 동기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모임을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올해로 환갑을 맞는 동기들을 축하하고 모교 지원방안에 대해 환담했다.

치대14동기회(회장 高寬成)는 최근 임원개선을 통해 신임 회장에 李丙烈(사진)동문을 선출하고 총무에 楊熙一동문, 재

환경조경학과

李載根회장 선임

환경조경학과동기회(회장 鄭京相)는 최근 신년회를 겸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임원개선을 했다.

이에 따라 신임회장에 李載根(사진)동문이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지질과학과

신임회장에 金洙鎭교수

지질과학과동창회(회장 金洙鎭)는 최근 호암교수회관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신임회장에 金洙鎭모교교수(사진)를 선출했다.

또한 부회장에는 李泓圭(조양산업회장), 尹允榮(한서엔지니어링부사장), 姜炳山(삼보지질대표이사)동문을 각각 선임했다. (熙)



단과대학(원) 및 기
과별 동창회 모임을 개
재해 드립니다. 희망하
시는 모임은 편집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 화:702-2233
FAX:703-0755

동정

수상

▲徐廷旭(57년) 工大卒·한국이동통신사장·本會理事)= 최근 美텍사스 A&M대가 외국인 동문에게 수여하는 「탁월한 국제 동창인상」을 수상했다.

▲金載源(57년) 醫大卒·충청남도보건과)= 최근 「세계 결핵의 날」을 맞아 「복식자대상」을 수상했다.

▲朴定勳(61년) 行大院卒·前천주교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지난 3월 8일 「내 타이오」 운동을 주창한 공로로 세계평화봉사단이 주는 세계평화상 「열매상」을 수상했다.

▲金鮮東(63년) 工大卒·쌍용정유사장·本會理事)= 제30회 「조세의 날」 기념식에서 금답산업훈장을 받았다.

▲鄭助英(64년) 文理大卒·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상임부회장·本會理事)= 최근 신산업경영대상심사위원회가 선정하는 「올해의 경영문화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任孝彬(65년) 工大卒·대우그룹고등기술연구원부원장)= 최근 신산업경영대상(기술부문)을 수상.

▲文熙甲(66년) 行大院卒·대구시장·本會理事)= 지난 3월 13일 한국능률협회가 선정하는 「한국지방자치단체경영대상」(경제활성화부문)을 수상.

▲李仁濟(72년) 法大卒·경기도지사·本會理事)= 지난 3월 13일 롯데호텔에서 한국능률협회가 선정하는 「제1회 한국지방자치단체 경영대상」(행정개혁부문)을 수상.

▲金炳珍(50년) 工大入·대림엔지니어링 부회장·本會理事)= 최근 대림엔지니어링 회장으로 승진.

▲劉俊相(54년) 商大卒·예술의전당 전시본부장)= 최근 97년에 개최되는 제2회 광주비엔날레 조직위원장에 선출.

▲洪用植(55년) 工大卒·인하대학교 교수·本會理事)= 최근 인하대학교 항공경영관리연구소장에 취임.

▲崔泳一(56년) 獸醫大卒·색동회 부회장·本會理事)= 최근 서울 YMCA 이사에 당선.

▲金斗榮(57년) 工大卒·인하대학교 교수)= 최근 인하대학교 산업과학기술연구소장에 취임.

▲文熙熙(57년) 工大卒·한국전력 이사장·本會理事)= 최근 한국산업문화회관 강당에서 열린 「한국산악회」 정총회에서 제19대 회장에 선출.

▲李宗勳(57년) 工大卒·한전사장·本會理事)= 최근 한국전력 주총에서 임기 3년의 차기사장에 재선임.



▲朱京在(57년) 工大卒·건국대학교 교수·本會理事)= 최근 건국대학교 대학원장에 취임.

▲韓允熙(57년) 工大卒·홍익대학교 교수)= 최근 홍익대학교 과학기술대학장에 취임.

▲孫永禧(57년) 文理大卒·前제일제당사장)= 최근 나산백화점 부회장겸 그룹유통담당 부회장에 취임.

▲柳宗鎬(57년) 文理大卒·이화여대교수)= 지난 3월 7일자로 연세대학교 국문과 尹東柱석좌교수로 선임.

▲金報根(57년) 法大卒·한국경량기포콘크리트협회장·本會理事)= 지난 3월 10일 대한건설진흥회가 발간하는 월간지 「건설교통저널」 사장에 취임.

▲車載璇(57년) 師大卒·인천교대교수)= 최근 인천교대 초대 초등교육대학원장에 취임.

▲金 應(58년) 法大卒·前통일부총리)= 최근 통일원 자문기구인 통일고문회의 고문으로 위촉.

▲尹永勛(58년) 商大卒·前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사무총장)= 최근 한국종합기술금융사장에 취임.

▲曹圭河(58년) 文理大卒·前전경련상임부회장)= 최근 한국과학문화재단으로 확대개편되면서 임기 3년의 초대 상근이사장에 선임.

▲李康樞(58년) 藥大卒·前국립보건원장·本會理事)= 최근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상근부회장에 선임.

▲林煥燮(59년) 文理大卒·고려대학교 교수·本會理事)= 최근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 신임회장에 선출.

▲李範景(59년) 商大卒·동일레나운사장)= 최근 동일레나운 부회장으로 승진하는 한편 한국다반 사장에 선임.

▲李鍊衡(59년) 商大卒·부산은행전무)= 최근 부산은행장에 선임.

▲曹京植(59년) 商大卒·前농림수산부장관)= 최근 한국해양대 총장에 취임.

▲馬奎河(60년) 工大卒·기아정기부회장)= 지난 3월 9일 기아그룹 부회장겸 기아정기부회장으로 승진.

▲姜惠遠(60년) 文理大卒·前안동전문대학장)= 최근 거창전문대학장에 임명.

▲權仁赫(60년) 文理大卒·외무부외무관리관)= 최근 서울시국제관계자문대사에 취임.

▲柳永益(60년) 文理大卒·前한림대부총장·本會理事)= 지난 3월 1일자로 연세대학교 「한국학 석좌교수」로 임명돼 국제대학원에서 한국사를 강의한다.

▲李建惠(60년) 商大卒·이화여대교수·本會理事)= 최근 이화여대 상경대학장에 취임하고 한국증권학회 제14대 회장에 피선.

▲朴贊雄(60년) 醫大卒·모교교수·本會理事)= 최근 모교 의학연구원에 취임.

▲鄭承燮(61년) 工大卒·중앙대학교 교수·本會理事)= 최근 중앙대학교 대학원장에 취임.

▲徐炳浩(61년) 文理大卒·공보처종합홍보실장)= 최근 한국방

송광고공사 사장에 내정.

▲張水榮(61년) 工大卒·포항공대 총장)= 국내 전기분야에서는 처음으로 영국전기전자학회 가 수여하는 올해의 「세계공인기사(Chartered Engineer)」에 선정.

▲李在述(61년) 文理大卒·부산은행상무)= 최근 부산은행 감사에 선임.

▲金井厚(61년) 法大卒·강원대학교 교수·本會理事)= 최근 열린 한국상사법학회 총회에서 회장에 선임.

▲朴普茂(61년) 法大卒·광주지방방법원장)= 최근 감사위원회 임명.

▲禹完植(61년) 商大卒·한화에너지사장·本會理事)= 최근 한국해양유류오염방제조합 초대 이사장에 선임.

▲李載厚(62년) 法大卒·변호사·本會理事)= 최근 현대종합상사 사외이사에 선임.

▲安鍾九(62년) 社會大卒·나이지리아대사)= 최근 시카고총영사에 임명.

▲金昌圭(62년) 師大卒·국민대학교 교수)= 최근 국민대학교 스포츠산업대학원장에 취임.

▲韓相宇(62년) 音大卒·서울예고음악부장·本會理事)= 최근 음악월간지 「음악춘추」 편집인에 취임.

▲金昌慶(63년) 工大卒·前삼성건설전무)= 최근 고탐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

▲林一雄(63년) 工大卒·송실대학교 교수)= 최근 송실대학교 대학원장에 취임.

▲黃鎬升(63년) 文理大卒·엘피가스공업협회장)= 최근 한국엘

피가스공업협회 회장에 재선임.

▲李東和(63년) 文理大卒·본보논설위원)= 지난 21일 서울신문사 제 58기 정기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이

사(주필)로 재선임.

▲李忠求(63년) 法大卒·우풍상호신용금고부사장)= 최근 우풍상호신용금고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

▲姜永三(63년) 師大卒·국민대학교 교수·本會理事)= 최근 국민대학교 사범대학장에 취임.

▲朴正植(63년) 商大卒·동일레나운부사장·本會理事)= 최근 동일레나운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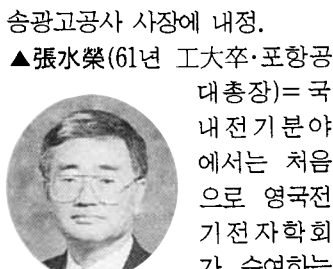
▲李炯均(64년) 文理大卒·본보논설위원)= 지난 19일 한국프레스센터 임시총회에서 전무이사에 재선임.

▲陳政一(64년) 文理大卒·고려대학교 교수·本會理事)= 최근 고려대학교 첨단재료화학연구센터 소장에 취임.

▲姜哲求(64년) 法大卒·서울지법남부지원장·本會理事)= 최근 전주지법원장에 취임.

▲韓眞裕(64년) 法大卒·미도과사장·本會理事)= 최근 한국백화점협회 총회에서 제10대 회장에 선임.

▲閔昌基(64년) 商大卒·장은창업투자사장·本會理事)= 최근 장은투자자문사장에 선임.



▲李在述(61년) 文理大卒·부산은행상무)= 최근 부산은행 감사에 선임.

▲金井厚(61년) 法大卒·강원대학교 교수·本會理事)= 최근 열린 한국상사법학회 총회에서 회장에 선임.

▲朴普茂(61년) 法大卒·광주지방방법원장)= 최근 감사위원회 임명.

▲禹完植(61년) 商大卒·한화에너지사장·本會理事)= 최근 한국해양유류오염방제조합 초대 이사장에 선임.

▲李載厚(62년) 法大卒·변호사·本會理事)= 최근 현대종합상사 사외이사에 선임.

▲安鍾九(62년) 社會大卒·나이지리아대사)= 최근 시카고총영사에 임명.

▲金昌圭(62년) 師大卒·국민대학교 교수)= 최근 국민대학교 스포츠산업대학원장에 취임.

▲韓相宇(62년) 音大卒·서울예고음악부장·本會理事)= 최근 음악월간지 「음악춘추」 편집인에 취임.

▲金昌慶(63년) 工大卒·前삼성건설전무)= 최근 고탐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

▲林一雄(63년) 工大卒·송실대학교 교수)= 최근 송실대학교 대학원장에 취임.

▲黃鎬升(63년) 文理大卒·엘피가스공업협회장)= 최근 한국엘

피가스공업협회 회장에 재선임.

▲李東和(63년) 文理大卒·본보논설위원)= 지난 21일 서울신문사 제 58기 정기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이

사(주필)로 재선임.

▲李忠求(63년) 法大卒·우풍상호신용금고부사장)= 최근 우풍상호신용금고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

▲姜永三(63년) 師大卒·국민대학교 교수·本會理事)= 최근 국민대학교 사범대학장에 취임.

▲朴正植(63년) 商大卒·동일레나운부사장·本會理事)= 최근 동일레나운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

▲李炯均(64년) 文理大卒·본보논설위원)= 지난 19일 한국프레스센터 임시총회에서 전무이사에 재선임.

▲陳政一(64년) 文理大卒·고려대학교 교수·本會理事)= 최근 고려대학교 첨단재료화학연구센터 소장에 취임.

▲姜哲求(64년) 法大卒·서울지법남부지원장·本會理事)= 최근 전주지법원장에 취임.

▲韓眞裕(64년) 法大卒·미도과사장·本會理事)= 최근 한국백화점협회 총회에서 제10대 회장에 선임.

▲閔昌基(64년) 商大卒·장은창업투자사장·本會理事)= 최근 장은투자자문사장에 선임.

「관악홀 의자 실명제」에 적극 동참을!

지난해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동창회관 5층 관악홀 시설보수를 실시하였으나 기존의 3백석 의자가 노후되어 교체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본회에서는 동문 3백명에게서 각 10만원씩을 기증받아 고급의자를 제작, 의자 뒷부분에 출연자의 성명과 출신대학을 명기하는 「관악홀 의자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문 여러분의 애정어린 협조로 현재 1백44개가 구비되었습니다만 앞으로도 1백56개가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서울대동창회관이 서울대인의 진정한 사랑방이 될 수 있도록 동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3월 출연자 명단 (가나다순)

△郭英哲(동아건설사장) △金基道(국회의원) △金一洙(삼성전자이사) △金炯英(경남은행장) △李圭成(세일정보통신상담역) △李時皓(력키중앙연구소) △李殷祈(변호사) △崔慶元(대구지검장)

도움주실 동문은 온라인 입금후 전화연락 바랍니다. 온라인: 조흥은행 397-03-002804(김재순) 전화: 702-2233

이동·선임

▲金炳珍(50년) 工大入·대림엔



▲洪泰善(65년 工大卒·한보철강생산본부 사장·本會理事)=최근 한보철강사장에 취임.

▲朴炳彦(65년 文理大卒·신라수산사장)=최근 신라수산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

▲宋成元(65년 文理大卒·코오롱유화부사장)=최근 코오롱유화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

▲李卿烈(65년 文理大卒·건설교통부주택도시국장)=최근 건설교통부 차관보에 임명.

▲羅慶植(65년 法大卒·경남대 교수)=최근 경남대 행정대학원장 겸 법정대학장에 취임.

▲李世護(65년 法大卒·나드리 화장품전문·本會理事)=최근 나드리 화장품 부사장으로 승진.

▲鄭泰翼(65년 法大卒·駐이집트대사)=지난 3월 5일자로 외무부 제1차관보에 임명.

▲安宇熙(66년 工大卒·한국철도산업기술연구원부원장)=최근 재단법인 한국철도 기술연구원 초대원장에 선임.

▲玄溫剛(66년 家政大卒·인하대 교수·本會理事)=최근 인하대 생활과학연구소장에 취임.

▲金仁浩(66년 法大卒·철도청장·本會理事)=지난 3월 8일 장관급 기구격상 이후 첫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

▲朴種悅(66년 商大卒·수산그룹해외사업본부장·本會理事)=최근 수산무역부사장에 취임.

▲姜孝善(67년 工大卒·포항제철이사)=최근 포항제철 상무

로 승진.

▲郭熙魯(67년 工大卒·숭실대 교수)=최근 숭실대학교 공과대학 학장에 취임.

▲李祥來(67년 齒大卒·경희대 교수)=최근 경희치과대학병원 신임 병원장에 선임.

▲裴基成(68년 文理大卒·대림산업부사장)=최근 대림코퍼레이션 대표이사 부사장에 선임.

▲金善玉(68년 法大卒·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직무대리)=최근 차관급으로 승격된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승진했다.

▲申舜鉉(68년 醫大卒·중앙대 교수·本會理事)=최근 중앙대학교 의료원장에 취임.

▲李龜澤(69년 工大卒·포항제철전문)=최근 포항제철부사장으로 승진했다.

▲朴鍾國(69년 法大卒·동양투금상무·本會理事)=최근 동양투자금융 전문으로 승진했다.

▲崔孝一(69년 師大卒·경남대 교수)=최근 경남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장에 취임.

▲李會晟(69년 商大卒·에너지경제연구원상임연구교수)=최근 현대종합상사 사외이사에 선임됐다.

▲潘基文(70년 文理大卒·외무부1차관보)=최근 청와대 외전수석에 임명됐다.

▲柳明恒(70년 法大卒·청와대 외교안보비서관)=최근 외무부 미주국장에 임명됐다.

▲朴琪鳳(70년 商大卒·비봉출판사대표)=최근 한국출판협동조합 정기총회에서 임기 3년의 신임 이사장에 선출.

▲金繁雄(70년 行大院卒·동국대 교수·本會理事)=최근 공무원인사정책심의회 위원장에 선출됐다.

▲金學中(71년 文理大卒·在美)=최근 (주)아남반도체기술 고문에 취임.

▲任晟準(71년 文理大卒·외무

부미주국장)=최근 駐이집트대사에 임명됐다.

▲權鍾洛(72년 文理大卒·前주미대사관참사관)=최근 청와대 외교안보비서관에 임명됐다.

▲李孝鳳(72년 文理大卒·前한불화학상무)=최근 코프랑(주)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했다.

▲高鉉旭(72년 商大卒·경남대 교수)=최근 경남대학교 경상대학장에 취임.

▲吳永寅(72년 音大卒·국립오페라단)=최근 서울시립오페라단장에 선임됐다.

▲趙現泰(73년 工大卒·숭실대 교수·本會理事)=최근 숭실대학교 교무처장에 취임했다.

▲權大旭(73년 農大卒·유원건설사장·本會理事)=최근 (주)한보 및 유원건설 사장에 취임.

▲朴永培(73년 醫大卒·모교교수·本會理事)=최근 노인의학의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 오는 98년 개원 예정인 국내 첫 노인병원전문센터 분당병원 건립추진본부장에 임명됐다.

▲姜英健(74년 工大卒·장은창업투자)=최근 同社 상무로 승진했다.

▲權世琳(74년 工大卒·고려대 교수)=최근 고려대학교 에너지기술공동연구소장에 취임.

▲崔昌根(74년 工大卒·고려아연부사장·本會理事)=최근 고려아연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했다.

▲朴有信(74년 法大卒·수원지법 부장판사·本會理事)=최근 서울지법 남부지원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겼다.

▲徐泰榮(74년 法大卒·前전주지법 부장판사)=최근 서울지법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겼다.

▲宋東源(74년 法大卒·서울동부지원 부장판사)=최근 서울지법 항소부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겼다.

▲李宙興(74년 法大卒·부산지법 부장판사)=최근 법원행정처 송무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趙承坤(74년 法大卒·서울고법 판사·本會理事)=최근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지법판사로 자리를 옮겼다.

▲韓宗遠(74년 法大卒·前전주지법 부장판사)=최근 서울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겼다.

▲朴柱鐸(74년 商大卒·수산중공업 사장·관악회 감사)=최근 수산중공업 대표이사 회장으로 승진했다.

▲李喆玉(74년 保大院卒·인천길병원 의료원장·保大院同窓會長)=최근 색동회 경인 지역 총회에서 초대

회장으로 추대됐다.

▲張一炯(74년 商大卒·통상산업부세계무역기구담당관)=최근 삼성전자 상무로 자리를 옮겼다.

▲尹伯榮(75년 環大院卒·前서울부시장)=최근 서울시립대 교수로 임용됐다.

▲諸俊煥(79년 經營大卒·동양제과영업부차장)=최근 동양제과 이사대우로 승진했다.

▲朴昌薰(80년 音大卒·장로회신학대교수)=최근 서울시립합창단 지휘자에 선임됐다.

▲金春洙(81년 美大卒·화가)=최근 세계3대 비엔날레로 꼽히는 상파울루 비엔날레에 참가할 한국 대표작가로 선정.

▲姜吉夫(84년 環大院卒·신한국당전문위원·本會理事)=최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에 임명됐다.

행사·출간

▲玄勝鍾(43년 法大卒·前국무총리)=최근 제6회 4·19포럼에서 「4·19를 회고한다」는 주제로 강연.

▲李永祿(54년 文理大卒·고려대 명예교수)=최근 「인류의 기원」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고 후학들로부터 정년퇴임 기념논총 「생물의 역사」를 봉정받았다.

▲盧隆熙(55년 大學院卒·모교 명예교수·정주장학회이사장·本會理事)=최근 대학신입생 15명에게 총5천5백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金命年(57년 工大卒·前서울시부시장·本會理事)=지난 3월 25일 코엑스빌딩에서 자민련 강남갑지구당위원장 개편대회를 가졌다.

▲金璟東(59년 文理大卒·모교 교수·本會理事)=최근 한국국제교류재단 해외한국학지원과제의 일환으로 미국 듀크대학 사회학과에서 「한국사회론」 강의를 마치고 귀국했다.

▲金泰俊(61년 法大卒·한국수출보험공사사장·本會理事)=최근 수출보험PC통신 정보시스템인 「수출보험정보은행」을 개통했다.

▲李國熙(62년 商大卒·삼화합동회계사무소)=최근 홍익대학교에서 「국제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경영학박사학위를 취득.

▲閔秀明(64년 法大卒·서울고법 부장판사·本會理事)=최근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다. 주소: 서초구 서초동 1709의 4 영포빌딩 203호 전화: 594-0100.

▲金載龍(68년 文理大卒·아태건설대표·本會理事)=최근 서초동 1557 건한빌딩 303호에

서 강남사무소 개소식을 개최. 전화 598-4631

▲尹正一(66년 師大卒·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회장·모교 교수)=지난 3월 8일 모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신교

육체제와 교육재정운영」이란 주제로 96년도 연차학술대회를 개최.

▲鄭鎮一(68년 文理大卒·한국정보문화센터사무총장)=최근 저서 「민주화 정보화의 작은 불씨가 되어」 출판기념행사를 가졌다.

▲朴伊東(68년 大學院卒·성균관대교수)=최근 미국 보스턴에서 「미국 에너지부」와 「지속 가능한 에너지협회」가 주최한 제1차 국제건물에너지학회 한국측 대표로 참석.

▲朴正修(69년 農大卒·대전지방국토관리청·本會理事)=최근 사무관승진 시험에 합격했다.

▲李德勳(70년 商大卒·흥농종묘사장·本會理事)=창사 60주년 사업으로 10억원을 출연해 「흥농어린이

심장재단」(전화3471-426)을 설립하고 농촌 및 해외동포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무료수술을 해주고 있다.

▲金潤澤(70년 經大院卒·양천장학회 이사장·本會理事)=지난 3월 2일 고당기념관에서 제21회 장학

금수여식을 갖고 중국교포를 포함한 27명의 대학생에게 총2천3백8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安富根(74년 文理大卒·미디어리서치전문)=최근 선거평론집 「보이는 선거 감춰진 선거관」(명경刊)을 출간.

▲李宗相(75년 工大卒·서울강동구청 건설국장)=최근 단국대학교에서 「지구교통계획의 교통수요분석

과 평가방법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

▲文緣仙(79년 音大卒·플룻연주가·서울아카데미심포니오케스트라수석주자)=지난 3월 30일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플룻독주회를 가졌다.

(정리=金志妍기자)

「호암상」언론부문 수상

본보 金昌悅논설위원



호암상위원회(위원장 李賢宰)는 지난 22일 호암아트홀에서 제6회 호암상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李壽成국무총리, 趙淳서울시장, 尹天柱·權舜赫·趙完圭전임 모교총장, 鮮于仲皓총장을 비롯해 각계 인사 9백여명이 참석했다.

모두 6개 부문에 걸쳐 진행된 이날 시상식에서 金昌悅(58년 法大卒·본보 논설위원)방송위원회 위원장이 36년간 언론에 종사하며 사회의식을 계도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언론상을 수상했다.

金동문은 1958년에 한국일보에 입사, 사회부장, 편집국장, 논설위원, 이사, 사장, 상임고문을 역임했으며 1993년부터 방송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아 왔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서 공학상부문은 고분자의 열적이력 연구로 새로운 고분자의 창출 이론을 체계화한 韓昌大(58년 工大卒·美에크런대교수)등문이 수상했다.



鄭宗澤 환경부장관에게 듣는다

“동문들이 환경과수꾼 역할 할 때입니다”

대담:李世震편집주간



지난 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鄭宗澤 환경부장관(본회 상임부회장)을 만나 환경·수질관리의 방안을 들어보았다.

장관 취임후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로 파악된 것은?

『60년대 이후 경제개발 위주의 성장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우리의 환경은 대기, 수질 등 전반에 걸쳐서 국민소득 1만불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미흡한 수준입니다.

그 중에서도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행정서비스인데도 수량부족과 수질악화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음식쓰레기의 과다 발생 문제입니다.

매년 막대한 양의 식량을 수입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한 해에 먹지도 않고 버려지는 음식쓰레기가 수 조원어치에 이른다고 하니, 음식쓰레기를 줄이는 것은 단지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문제일 뿐 아니라 다가올 식량위기의 극복, 외화절약을 위해서도 꼭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심각한 영호남 지역의 가뭄대책은?

『3년 동안 계속된 가뭄으로 인하여 영호남 일부지역 주민들이 격일 급수 등 제한급수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1년간 총강수량은 1,267억 톤이나, 이중 23%인 310억톤만 이용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하천이나 지하수로 유출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물부족현상은 다목적댐이나 저수지의 확충이 부진했던 데에 가장 큰 원인이 있겠지만, 수돗물을 사용하는 국민들이 그야말로 「물을 물 쓰듯 하는」 잘못된 소비행태를 보이는 것도 문제입니다.

특히 수돗물의 가격이 생산원가에도 못미치는 1톤당 253원 수준에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커피 1잔값이 수돗물 8톤 사용요금과 맞먹는 실정이며 수입생수 가격의 5,800분의 1밖에 안됩니다.

이렇게 수돗물값이 저렴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수돗물 사용량은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3~4배에 달합니다.

한정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정부는 앞으로 댐과 저수지를 대폭 확충하고 임해공단이나 도서지역에는 해수담수화 시설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한편, 수도요금의 사용량에 따른 누진율을 적용하여 다량 사용자에게는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등의 수요관리대책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지난 달 세계 물의 날에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녹색환경의 나라 구상」의 의의는?

『지난 3월 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이하여 대통령께서는 각계 대표 200여명을 청와대 오찬에 초청, 우리나라를 「녹색 환경의 나라」로 만들기 위하여 「환경대통령」이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

를 표명하셨습니다.

우리나라 환경행정 역사상 큰 획을 긋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정부 각 부처 뿐 아니라 민간환경단체에서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밝히신 「환경공동체 건설을 위한 5대 기본원칙」과 「7개 실천과제」를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하여 국민, 기업, 종교계 등 사회 각계각층이 한 마음이 되어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까.

대통령께서 밝히신 구상과 의지를 실현시키는 일은 이제부터 우리 모두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조속한 시일내에 과제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께서 밝히신 환경정책구상이 앞찬 열매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문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먼저 그동안 동문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0여년간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주역이었던 우리 동문들이 이제는 21세기 환경의 세기를 맞이하여, 대통령께서 당부하신 바와 같이 「환경과수꾼」의 역할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께서도 지난 달 세계 물의 날을 맞이하여 팔당호에서 개최한 「녹색환경 실천결의대회」에 직접 참석하셔서 온국민의 환경보전 실천 동참을 호소하신 바 있습니다.

「녹색환경의 나라」를 가꾸어 나가는 일에, 동문 여러분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變)



지난 몇 주 동안 온 세계의 이목이 대만 해협에 집중되고, 온 매스컴이 전쟁이 금방 터질 것처럼 부산을 떨었다. 대만인 친구들이 하도 걱정되어, 한 친구에게 안부를 묻는 전자 우편을 보냈더니 금방 회답이 왔다.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테니 걱정하지 말고, 내년에 다시 올 계획이나 세우라』는 것이 그 내용이다.

지난 3년 동안 겨울 방학마다 3주에서 한 달씩 대만의 연구소를 방문하면서 대만 문제를 약간 이해하게 되었고, 그들의 고난의 역사가 우리의 경우와 비슷함을 알게 되었다.

고난의 역사, 우리와 비슷

대만 인구의 9할 이상을 차지하는 대만인들은 3백년 전부터 대만으로 이주한 중국인들로서 한때는 독립 국가로 지내왔고, 청국에 예속되어 있다가 한국에서 일어난 청일전쟁의 결과로 일본 통치밑에 51년을 보냈다. 2차대전 후에 들어온 국민당 정부는 2·28 사건과 같이 무자비한 폭거로 대만인들을 탄압한 일도 있으며, 대륙이 공산화된 뒤에는 인구의 1할이 못되는 대륙인이 대만을 지배해 왔다.



朴世熙

서울대 자연대교수

대만 이야기

그동안 대만인들은 대만 독립의 기치 밑에 한동안 망명 정부를 가지고 있었으며, 아직까지도 그들이 주체가 되는 「대만공화국」 형태로의 독립 운동을 벌여 오고 있다. 대만인들은 자기네 조상이 대륙인들과 동

족임을 인정하지만, 대륙 정부가 대만을 자기네 영토, 자기네 인민으로 간주하는 데는 찬성하지 않는다.

한편, 오랜 동안의 대만인의 노력으로 대만이 세계 유수의 경제 대국이 되고, 민주화 운동이 결실을 보아 총통 직선이 처음 시행되는 이 해에 대륙의 중국 정부가 엄청난 심술을 부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경제대국·민주화 운동 결실

대만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첫째, 대만이 독립할 경우 티베트, 내몽고 등 변경의 여러 민족이 그에 따를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 대만의 영향력이 커지고 민주화가 대륙으로 파급되는 것을 겁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고 대만의 경제력을 어떤 형태로든 중국이라는 큰 태두리 안에 묶어두려는 의도도 있다고 한다.

그래도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대만인에게 대륙 정부는 무엇이며 무엇이어서 하는가? 미사일과 봉쇄와 위협으로 가르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본보 논설위원)

서울대 동문에 고함

동문의식 없어서야...

金殷泳(61년 工大卒)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



최근 독일의 다름슈타트공대에서 腦 과학을 전공한 젊은 과학도가 KIST에서 일할 수 없느냐는 편지를 직접 원장인 나에게 보내왔다. 정말로 오랫동안 대학동창 후배에게서 받은 편지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腦 과학자를 구하고 있던 참이어서 이 학교에서 제1회 박사 학위를 받고 졸업한 나로서는 매우 반갑지 않을 수 없었다. 우연인지는 몰라도 그후 얼마 안되어 다름슈타트공대 동창회 명단이 우편으로 오고, 간사가 직접 전화를 걸어와 그간 대선배를 모시지 못해서 죄송하다

는 말과 함께, 국내에 30여명의 동문이 있어 매년 2회씩 정기적으로 가족과 함께 모임을 갖는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다.

과행사만 관심가져서야

국내에는 특히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이 많고, 이들은 제각기 동창회를 갖고 있다. Michigan대학동창회, Illinois대학동창회, MIT대학동창회 등, 회원만 해도 몇 백명이 되는 것이 보통이다. 고등학교 동창회도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TK, PK 등은 경북고와 경남고

를 배경으로 형성되었고, 서울고나 경기고 인맥들도 가끔 신문이나 잡지에 소개되기도 한다.

이에 비해 서울대의 동문의식은 너무나 희박하다. 총동창회, 단과대학별 동창회, 과별 동창회로 나뉘어져 있지만, 과별 동창회에만 관심을 표명할 뿐이다. 「서울상대를 나왔습니다」하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소개하면, 고등학교나 다름슈타트공대를 나왔다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반갑다는 감정이 없고 마치 다른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 같은 느낌을 준다.

KIST도 대부분 서울대 동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다른 대학과 같은 동창회를 열어본 적이 없다. 이처럼 동문의식이 약한 것은 두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첫번째가 너무나 많은 동문이 사회 각계에서 중요한 자리를 잡고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 큰 원인이고, 두번째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단결심이 약하다는 것이다.

서울대특별법 절대필요

그러나 모교가 발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더욱이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사랑하는 모교가 세계 대학순위에서 700위 수준이 된다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모교도 Quantum Jump가 필요한 때이다. 이를 위해 현재 모교가 추진하는 서울대 특별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차제에 약화된 동문의식을 강화하여 모교가 필요로 하는 힘과 용기를 주는데 동문 모두가 동참하기 바란다.



「역사 바로 세우기」에有感

문민정부 출범한 지 3년, 구 총독부 건물의 철거와 「역사 바로 세우기」에 온 열을 쏟고 있다. 일반 서민들은 무조건 큰 박수를 보내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역사 바로 세우기」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생각들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 헌법에는 민주주의를 내걸고, 너도 나도 민주주의 신봉자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옳은 것은 수용을 할 수 있는 아량이 모자라, 민심이 솔직하게 위정자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만사가 잘 된다」는 식으로 전하여짐으로써 권력주변의 인사들은 연명책은 뭘 지 모르나, 국민들의 가슴에는 어두운 그림자만을 안겨 주고 있다.

우리는 세계의 봉인가?

군사정부하에서 높은 벼슬로 부귀영화를 누렸던 자, 일제때 그들에게 기식하여 잘 살아온 자들, 이들 모두가 시대가 흐르고 권력이 바뀌어도 이들의 처세술은 늘 권력의 주변에 맴돌며 기득권을 옹호하는 세력으로 개혁에 대해 음양으로 저항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주변의 현실이다.

문민정부는 출범에 있어 정통성에 바탕을 두고 있으므로, 주권 독립국가로서 당연히 우리의 국익, 국민의 울분에 대해서 대처하는 외교적 노력을 펴야 된다. 그 하나의 예로 미 8군 쪽으로 달리던 동작대교가 미 8군 앞에서 끊어지고, 우회를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의 철길이 휴전선 부근서 철마가 단절되고 있는 것처럼 흥



崔鍾起명예교수

물로 남아 있음을 본다. 우리 땅에 미 8군의 골프장 때문에 우리의 도시계획선이 굴곡된 현실, 미 8군 골프장이 우리의 세금으로 서울 근교로 옮겨진 지 이미 오래이다.

미 8군 용산지역은 한국정부에 이양되도록 각서까지 교환된 지 오래이나,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고 한미행정협정 불평등 조항의 개정은 말뿐이고 별 진전이 없는 것이 현실이고, 해외주둔 미군의 주둔비의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이 한국이고 보면 우리는 외채 8백여억불을 지고 있으면서 세계의 봉노릇을 하고 있다.

국익위한 외교술 펼 때

「역사 바로 세우기」는 이러한 굴곡된 우리의 역사의 흐름, 현실을 직시하고 즉흥적이 아닌 긴 안목에서의 역사의 흐름을 바르게 하는 것이 첩경인 것이다. 역사란 어떤 권력자, 위정자에 의해서 왜곡되어서도 안되고, 역사에 나쁜게 기록되면 후세에도 지탄의 대상이 된다는 역사의 준엄성에 대하여 겸허한 마음으로 「역사 바로 세우기」에 국민 모두가 동참해야 될 것이다.

냉수마찰하는 팔십청춘

尹鳳連(34년 京城師範卒)前홍지유치원 원장



필자는 여든을 넘긴 나이에 냉수마찰과 걷는 운동을 하루도 거르지 않는다. 아무리 추운 날씨에도 새벽에 일어나 3, 40분간 마당에서 간단한 체조와 산책을 하고 집 근처에 있는 산에 오른다. 내려오는 길목에 혼자만 이는 우물이 하나 있는데 그 물이 너무 맑고 좋아서 몇 년째 냉수마찰을 해오고 있다. 유난히 추웠다는 이번 겨울에도 감기 한 번 안걸리고 넘겼으니 아마도 꾸준한 운동과 좋은 식습관 때문인 것 같다.

동창회 행사에 안 빠짐

필자보다 훨씬 젊은 사람이 허리가 굽어 지팡이를 짚고 다니거나 남의 도움 없이는 움직이지도 못하는 걸 보면 내 일처럼 속이 상한다. 필자는 지금도 총동창회 주최 정기총회나 관악산 등산대회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필자는 여행을 좋아해서 여기저기 많이 다녔는데 수석을 모으는 취미가 있어 마당 한켠에는 여행지에서 하나 둘 모아온 수석들이 제법 많이 있다. 잘 생겼든 못생겼든 모두 아끼고 소중히 생각하는 것들이다. 시간이 날때마다 그동안 모아온 돌로 정원을 꾸미느라 이리저리 돌을 나르는데 이것도 필자에게는 큰 운동이 되는 것 같으니 일석이조라 하겠다.

동문들에게도 시간과 장소를 일부러 정해서 운동한다는 생각을 갖기보다는 마음을 게을리하지 않고 「내 건강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라고 말해주고 싶다.

음식은 적게 먹는 편이고 육식보다는 채식을 많이 하고 과일과 사과를 유난히 좋아해서 하루에도 몇개씩 먹는다. 하지만 특별히 음식을 가리지 않고 어떤 음식이든 골고루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직도 부모님이 주신 치아로 음식을 먹는데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지는 나이가 든 사람이면 충분히 이해할 것이다.

참선을 하는 것도 마음의 건강과 삶의 기력

을 충전하는데 큰 힘이 된다. 필자는 불교신자로서 하루중 일정시간을 내어 마당에 자리를 마련하고 참선을 한다.

참선으로 삶의 힘 충전

12년간 부산에서 교편생활을 했고 10여년전에 홍지유치원을 설립, 원장 할머니로 있다가 최근 일선에서 물러났다. 시조연합회 운영위원을 역임한 바 있는 필자는 70년대부터 시조경향대회에 나가 다수의 수상경력을 갖고 있다. 가끔 집에 오신 손님들이 한국조 부탁하면 아직은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청산리 벽계수야 쉬이감을 자랑마라」며 나름대로 멋드러지게 불러주는 것도 삶의 즐거움 중의 하나다. 필자는 1남2녀를 두었는데 대부분 교수로 봉직하고 있고 특히 막내딸은 효성이 지극해서 여러모로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

나날이 떨어지는 기억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동안 필자와 관계된 모든 사항을 메모하고 정리해서 차곡차곡 모으고 있다. 꼼꼼하게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매사에 관심과 흥미를 잃지 않게 되고 그만큼 마음이 젊어져서 젊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데도 좋은 자료가 되는만큼 동문들에게 꼭 권하고 싶다.



李世中 공동대표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의 선구자



오는 11일 실시될 15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맞이하여 시민운동차원에서 올바른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선거 감시 활동을 펼쳐온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약칭 공선협)의李世中(57년 法大卒)공동대표를 만나보았다.

- 설립배경은.

『선거문화의 가장 문제점은 금품 타락선거, 혈연·학연·연고지에 의한 투표, 흑색선전·상호인신공격, 무분별하고 실현 불가능한 공약 남발입니다. 이러한 선거문화의 타락과 왜곡을 방지하고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투표권을 계몽·교육시키고자 지난 91년부터 소비자단체, 여성관련단체, 경제정의실천연합,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환경운동연합 등 60여개의 시민사회단체가 협의체를 구성, 활동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인 활동은.

『부정선거에 대한 감시 및 고발, 사례조사 등을 주된 업무로 하여 고발 접수된 사항의 사실여부를 확인, 객관적 증빙자료가 뚜렷한 것은 검·경찰 등의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고 불확실한 것은 증거수집 보장과 해당 후보자에게 주의 및 경고를 하며 언론에 이를 알리고 있습니다.』

이번 15대 총선을 앞두고 3월 7일까지

공선협에 고발 접수된 것이 2백6건인데 이중 금품제공 및 선심관공이 35%, 불법 홍보물 제작이 21.8%, 관건개입이 3.9%를 차지했습니다』

- 공선협의 동문구성은.

『현재 공선협의 공동대표로는 孫鳳鎬(61년 文理大卒·서울대교수), 李正子(63년 文理大卒·우리민족하나운동 회장)동문과 비동문으로 조계종 원장인 송월주 스님이 있으며 俞在賢(73년 工大卒·경실련 사무총장)선거부정대책위원장, 金聖壽(81년 師大卒)사무처장, 柳海信(83년 人文大卒·기독교윤리실천운동 총무)재정위원장, 柳鍾星(84년 社會大卒·경실련 실장)정책위원장, 尹錫奎(86년 人文大卒)안산YMCA총무 등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 15대 총선을 위한 준비작업은.

『이번 총선은 문민정부 출범이후 개혁이라는 전제하에 처음 실시하는 총선이고, 여·야 합의를 통한 통합선거법에 의해 치러지는 첫번째 선거이기에 과거와는 달리 돈 안쓰고 깨끗한 선거문화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에 선거문화를 바로 잡지 않으면 앞으로는 힘들 것이기 때문에 공선협에서도 이번 선거만큼은 훨씬 나아졌다는 평가를 들도록 한 후보자에 세 명의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부정선거 감시요원을 붙여 항상 주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위주의 선거문화가 정착되도록 각 지역마다 후보자들의 경력이나 사회활동, 공약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 유권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李世中공동대표는 변호사,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 공동대표, 시민운동지원기금 이사장,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경실련의 고문으로서 바쁜 와중에도 선거철이 되면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활동을 펴고 있다. 공선협 전화: 3673-0921 (變)



공대61동기회

모교 발전기금 1억2천만원 출연 여학생과 만날때만 교복 입어

「공대61동기회」는 모교 공대를 61년에 입학했거나 65년에 졸업한 동문들로 구성된 모임이다.

공대19회 출신들이 과별로 모임을 갖고 활동해 오던 것이 작년에 졸업3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하면서 각과별 대표가 준비위원으로 모이게 됐고, 기념식겸 창립총회를 거쳐 表相基상지상사 대표이사를 회장으로 선출하면서 현재의 모임으로 새롭게 탄생했다.

졸업 30주년 기념식은 1백50여명의 동문과 50여명의 은사님들이 부부동반으로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치러졌다. 총회원 3백80여 명 가운데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5명의 동문도 참석, 공간을 초월하는 동기애를 과시하기도 했다.

同會는 11개과에서 1억4천만원을 출연, 모교발전기금으로 1억2천만원을 기탁하고 2천만원을 동창회기금으로 적립, 그 수익금으로 후배들을 위한 장학사업을 펼 계획이다. 회원들 대부분이 기업체 대표로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사회적 지위나 유명세와 무관하게 자기 분야의 발전과 모교지원을 위해 합심하고 있다.

同會 회원들의 대학시절은 재미난 추억거리도 많이 있다. 表회장의 기억에는 마지막 등록금이 7천7백76원이었다. 군복을 검게 염색해 입고 다니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고, 교복은 여학생과의 데

이트가 있을 때만 입는 특별한(?) 옷이었다.

공대 캠퍼스는 다른 단과대학보다 시설이 잘 갖추어진 편이었다. 공릉동에 위치해서 기차나 버스로 통학해야 하는 불편함은 있었지만, 점심시간에는 방송반에서 들려주는 솔베지의 「회상」을 즐기며 잔디밭에서 점심을 먹기도 하고 수영장에서 수영을 즐길 수도 있었다.

63년경 기숙사가 완공되어 이전까지 입주 가정교사 아르바이트로 눈치밥을 먹던 대다수의 동기들이 그야말로 자유인이 되는 혜택을 입게 되었다. 계속해서 과외지도 아르바이트를 하던 이들은 밤10시쯤 기숙사로 가기 위해 마지막 버스를 타려고 정류장에 모여드는 게 새로운 풍속도가 되었다. 가끔씩 버스비를 모두 모아 소주와 과자를 사서 먹으며 그 먼 밤길을 걸어가는 젊은 호기를 부려보기도 했다.

그런 추억과 함께 학창시절을 함께 보낸 동기들의 졸업30주년 모임에는 공대 유일의 여학생이었던 文一志(원자력 공학과卒)동문이 멀리 미국에서 오기도 했다. 행사중의 文동문의 인기도 학창시절 못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同會는 매년 10월 정기총회를 열기로 하고 등산, 골프 등의 모임도 활발히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회원들의 인적사항을 정리한 회원명부도 발간했다. (熙)



모교 교수회관에서 졸업30주년 행사를 마치고.

모교소식

96학년도 5천50명 입학식 거행

鮮于총장 “자기분야의 최고가 되자”



鮮于총장은 학덕을 기르는데 노력하자고 말했다.

지난 2일 5천50명의 96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을 모교 관악캠퍼스 체육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입학식은 본회 鄭宗澤 상임부회장, 李世震사무총장, 모교 鮮于仲皓총장, 崔松和부총장

을 비롯한 보직교수,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尹桂燮교무처장의 학사보고, 신입생선서, 모교 기관장 소개, 음대 朴忍洙 교수의 축하 순으로 이어졌다.

鮮于仲皓총장은 식사를 통해

『자기 분야에서의 최고 전문가가 될 것』을 당부하고 『우리나라의 장래가 바로 여러분의 어깨에 달려 있음을 명심하여, 학덕을 기르는 데 더욱 분발 노력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사범·간호대 학장 취임 연구부처장에 尹希苑교수

지난 2월 17일자로 사회과학대학장에 인류학과 韓相福교수, 2월 24일자로 사범대학장에 지리교육과 黃載機교수가 취임했다.

신임 韓학장은 61년 모교 사회대를 졸업,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67년 모교에 부임해 사회대 학장보, 인구 및

발전문제연구소장, 비교문화연구소장 등을 역임했으며 신임 黃학장은 60년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석사, 日동북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70년 모교에 부임, 사범대 학장보, 관악사 사감 등을 지냈다.

한편 지난 3월 1일자로 간호대학 학장에 李笑雨교수, 본부

연구부처장에 국어교육과 尹希苑교수가 각각 취임했다.

신임 李학장은 64년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보스톤대 석사 및 연세대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72년 모교에 부임, 연구 및 교육에 전념해 왔다.

모교 여성 첫 보직교수인 신임 尹연구부처장은 79년 사범대학 국어교육과를 졸업, 파리 7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교원대 교수를 거쳐 89년부터 모교에 재직해 왔다.

수능 20% 주관식 출제 건의 제2외국어·논술과목 포함도

모교는 지난 21일 98학년도 수능시험부터 주관식 문제를 20% 출제하고 문제 유형을 다양화하여 변별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능시험을 개선토록 6월말까지 교육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하루인 시험기간을 이틀로 하는 대신 수능시험 문항 수를 늘리고 수능시험에

논술과 제2외국어 과목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건의서에 넣기로 했으며 수능시험 문제유형과 대학입시일을 모두 「가」「나」「다」「라」의 4개군으로 나누고, 수험생은 자신이 선택한 문제유형군에 속하는 대학의 입시에만 지원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인터넷 전용룸」 개장

모교는 엘렉스컴퓨터의 지원을 받아 국내 대학에서 처음으로 「인터넷 전용룸」을 열고 지난 18일부터 학생들이 쓸 수 있도록 공개했다.

이 인터넷 전용룸은 학생들을 위한 인터넷 교육장으로 활용된다. 재학생은 물론 교수들도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

는 인터넷 정보 검색공간으로 쓰인다.

이를 위해 모교는 애플 인터넷 서버를 도입했고 엘렉스컴퓨터는 산학협동을 위한 지원 차원에서 파워맥킨토시 30대(1억원 상당), 레이저 프린터, 인터넷 정보검색 소프트웨어 등을 모교에 기증했다.

비디오 라이브러리 개방

치과대학 도서관(관장 洪森杓)은 오는 4월 7일, 5월 26일, 9월 8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비디오 라이브러리를 개방할 예정이다.

10대의 비디오 모니터와 10

대의 VCR이 갖추어져 있는 비디오 라이브러리에는 최신 임상 치의학 강의 비디오 테이프가 준비되어 있어 열람시 임상 치의학의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전화 740-8621)

(變)

개교50주년 기념우표

오는 10월에 발행예정인 서울대학교 개교 50주년 기념우표를 미대 金敎滿 명예교수가 정보통신부로부터 추천을 받아 디자인 했다.





3월호를 읽고

「신간」사진도 함께 실기를...



3월호(216호)를 보노라면 鮮于총장의 사진이 너무 비대한 감을 느꼈으며 「신간」도 책을 받았으면 표지 사진도 함께 실었으면 좋겠다.

신간은 사회교육으로서의 뜻도 있으므로 좀 돋보이게 함이 어떨까 해서다. 끝으로 20년까지는 고급지에 칼라로 편집하고 그 다음 면들은 재생지로 한 듯한데 앞의 20면도 다같이 재생지 정도로 발간해도 좋겠다. 비용도 절감되고 자원도 아끼고 환경도 개선되는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李柱晟(65년 大學院卒)성신여대교수

동문모임

좀 더 발굴해야



경영대학원의 경우는 구성원 중에 만학도가 많아 형식적이지 아닌 가족적 분위기에서 꾸준히 지속되는 동창회 모임이 허다한 것으로 사료된다.

예로 경영대학원 제4회에서는 뜻을 같이하는 동문들의 모임인 萬壽會가 격월로 부부동반하여 1970년 졸업 이래 현재까지 25년간 지속되고 있는데 이러한 특색 있는 동창회모임을 많이 소개했으면 한다.

金潤澤(70년 經大院卒)양천장학회 이사장

「동문의 소리」란을 통해 동문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편집부

전화: 702-2233
FAX: 703-0755



긴 인연, 서울대학교

내가 중학생 때던가 서울대 학생이면서 시간강사로 나오셨던 선생님이 서울대가 종합대학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격렬한 데모에 가담하고 계신다는 소문이 있었다. 학생들은 그것이 어떤 성격의 것인지 몰랐으나 선생님이 반대하시니까 종합대학이라는 것은 안 좋은 것인가보다라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 일이 있으면서 태어난 서울대가 창립 50주년을 맞는다.

민족과 함께 해온 50년

1950년 5월 내가 언어학과에 입학했을 때는 여학생용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했는데 여학생 수가 워낙 적어서 소수를 위해 배려할 형편이 못되었던 것이다. 교사 신축 관계로 개강은 6월 19일이었다고 기억하는데, 개강 후 일주일만에 6·25전쟁이 일어났다. 휴전 후에 보니, 50년에 입학한 여학생은 그나마 그반의 반도 보이지 않았다. 전쟁 중에 죽고 납치되고 혹은 부역했다는 이유로 복학을 못한 것이다. 교수들도 그

와 같은 이유로 많은 분이 보이지 않았다. 동족 상잔의 전쟁이 마구 부수고 할취고 간 잔해는 그렇게 처참했다.

1974년 교사가 관악구로 이전할 때 이전 반대의 소리가 높았으나 결국 이전되고 말았다. 우리 내외는 어린 4남매를 데리고 헐리기 직전의 동송동 캠퍼스에 가서 사진을 찍고, 우리의 학창시절과 4·19의 영혼들을 생각하며 잠시 감상에 젖었는데, 어린 아이들은 좋아하고 교정을 뛰어다니고만 있었다. 그 아이들이 자라서 큰 아들은 자연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해외 유학을 끝내고 금년 가을 학기부터 수학과 조교수로 오고, 막내는 해외 유학중 귀국해서 군 복무중이다. 딸 둘은 남편 따라 해외에 있는데, 큰 사위는 경제학과, 작은 사위는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내 남편이 법대를 졸업하고 음악 대학에 4년간 강사로 있었고, 나 또한 음대에 14년간 강사로 있었고, 큰 며느리가 해외 유학중이나 영문과를 나왔으니 서울대와 인연도 깊다. 내 아들과 손자들이 서울대 창립 백주년 때 동창회보에 어떤



韓末淑(55년 文理大卒)소설가

글을 쓸까하고 생각하니 기쁘면서도 동시에 긴 역사 앞에 숙연해진다.

차세대의 활약 기대해

신림동 사거리에 서울대라고 쓰여진 도로표지판을 보면서부터는 가슴이 설레다가, 우뚝 솟은 교문을 들어서면 80년대의 쓰라린 기억에 가슴이 아파진다. 그러나 자연대를 지날 때는 속아나는 애정을 누를 수 없다. 끈끈한 인연이라 할까?

서울대는 이제 여학생 수가 남학생수를 육박하고 있다고 한다. 남녀학생을 막론하고 국가와 인류에 공헌하는 사람이 수도 없이 나왔으면 하는 기대 또한 간절하다.

과대광고 후보들

남편의 고교동창생 중에 하위직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분이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장 말단 공무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그는 다른 친구들이 방학이 되어 일류대학 뱃지를 달고 거들먹거리며 고향을 방문할 때면 남몰래 울분을 삭여야만 했다.

인격은 직위와 무관해

한마을에 사는 처녀와 일찌감치 결혼하여 안정된 생활을 하다가 싶었으나 그후에도 한동안 마음을 못잡아 부인의 애를 태우다가 뒤늦게 면학의 길로 들어서서 어렵게 야간대학을 마쳤다. 그리고는 서울로 올라와 세 아이의 아버지로서, 충실한 직장인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굳혔으며, 주변사람들의 어려움을 보면 기꺼이 나서서 도움을 주고자 마음을 쓴다.

며칠 전, 대기업 이사로 근무하는 어떤 동창생을 문병하고 오는 길에 그가

이런 얘길했다.

『난 말이지, 나보다 훨씬 나이 어린 상사가 부임해 와도 늘 이렇게 말하곤 하지요. 「저한테 부담 갖지 마시고 제가 할 일이 있으면 서슴치 말고 시키세요. 그래야만 서로 맘편히 일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라고요. 간혹 술자리에서 함께 어울릴 때라도 난 언제나 껍뚝이 경어를 쓰지요』

과묵한 그의 입에서 느닷없이 튀어나온 처세론에 잠시 할 말을 잊었으나 나는 이내 진심으로 찬사를 보냈다.

금배지만 좇아서야...

업무가 밀릴 때는 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출근하는 일이 많지만 그에게서 불평의 말을 들은 적은 거의 없다. 가까이에서 이처럼 진정한 봉사자, 국민의 공복으로 존재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부정과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이 상당 부분 희석되곤



張龍仙(76년 家政大卒)前장풍문화 대표

한다.

또다시 선거의 계절을 맞이하여 참된 일꾼임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저마다 화려한 학력과 업적, 혹은 투쟁경력을 내걸고 출사표를 던졌다. 그 가운데는 이 줄져줄 가리지 않고 소신도 무엇도 없이, 금배지를 좇아 자신은 과대광고하면서 상대 후보를 마구 깎아내리는 무리들도 있다. 온갖 달콤한 말로 지역이 기주의를 부추기며 주민을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다 할 것 같이 말의 성찬을 벌이는 사람들에게서 진실된 봉사자의 모습을 기대할 수 없음을 왜일까?

진정한 선량을 가려내는 지혜의 잣대라도 가졌으면 싶은 심정이다.

정년퇴임교수 프로필

그동안 수고



金鏡世교수 인문대·국문학

「허균연구」등 다수 명저 남겨

『졸업하는 기분입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퇴임후에도 현재하고 있는 작업을 계속하고 사회봉사활동에 좀더 주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1930년 상주 출생인 김교수는 1960년 모교 국문과 및 대학원을 졸업하고 68년에 모교교수로 부임해 관악사 사감을 지내면서 30여년간 국문학 연구와 후학양성에 헌신해왔다.

88년 국어국문학과장을 역임한 바 있는 김교수는 그동안 「허균연구」를 비롯한 연구서와 고전문학사의 대표적 장편인 「완월희맹연」을 발간한 바 있다.

국어학 연구분야의 태두

李교수는 1953년 모교 국문과를 졸업하고 62년 문리대 전임강사로 부임, 76년에 모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2, 30년대의 한국문학작품과 외국문학을 읽으며 여가를 보낸다는 李교수는 한국문화연구소장, 중앙도서관장 등을 역임했으며, 「국어사 개설」 「국어음운사연구」 등 국어학분야의 태두로 존경받아 왔다.

『옛날엔 국어학자가 얼마 없어서 이것저것 혼자 다해야 했다』며 옛시절을 회상하는 李교수는 테니스에도 상당한 실력을 갖고 있는 스포츠맨이다.



李基文교수 인문대·국문학



金文漢교수 공대·건축학

건설부 전문직교수로 활약

『차분히 건설관리에 관한 글을 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1930년 대전 출생인 김교수는 1958년 조선대 건축공학과를 졸업, 고려대 석사 및 모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66년 모교에 부임, 건축학과장을 지냈으며 건설부 전문직 교수로 활약하는 등 그동안 학문연구와 후진양성에 전념해 왔다.

『무엇보다 내가 가르친 제자들이 건설계에서 한 몫을 하는 것을 지켜볼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는 김교수는 앞으로도 연구생활을 계속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선해양공업의 개척자

『건강하게 정년을 맞은 것이 기쁩니다. 후학 교육이나 학문연구에 대해서도 그리 후회가 없으니 감사할 따름이지요』

1930년 서울 출생인 김교수는 1953년 모교 조선공학과를 졸업, 61년에 모교교수로 부임한 후, 70년 모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84년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은 바 있는 김교수는 우리나라 조선해양공업 발전의 개척자로 평가받고 있다.

해양시스템공학연구소장을 역임한 바 있는 김교수는 퇴임후 후학들을 위해 체계적인 저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金極天교수 공대·조선공학



金商周교수 공대·금속공학

학사운영쇄신의 기반다져

金교수는 1956년 모교를 졸업하고 62년 공대 전임강사를 시작으로 72년 교무과장, 86년부터 4년간 공대학장을 역임했으며, 91년부터 부총장을 맡아왔다.

부총장으로 있으면서 「학사운영쇄신방안」을 추진해 기숙사 확충과 시설개선, 도서기금·발전기금 마련 등으로 모교의 발전기반을 다지고 교과과정 개선 등의 실질적 학사운영에 힘써 모교의 질적 발전에 공헌을 했다. 김교수는 「많은 것을 해내려고 욕심부리기 보다 확실한 목표와 궤도를 정하고 그 실현을 위해 전 서울대인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농경제학 연구·후학양성 힘써

1930년 순창 출신인 朱교수는 1954년 모교 농경제학과를 졸업하고 62년부터 모교교수로 봉직해왔다.

71년 모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92년 농경제학과장을 지냈고 교육 및 연구외에 농업진흥청의 정책 수립에 관여했다.

『앞으로는 못다한 남은 공부를 더욱 열심히 하고 틈틈이 산에 오르면서 건강관리에도 신경을 쓸 계획』이라며 「모교는 전국의 수재가 모여 공부하는 곳인만큼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모교발전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朱奉圭교수 농대·농경제학



辛東韶교수 농대·임산공학

임산물 가공연구에 몰두

1957년 모교 임학과를 졸업하고 69년 일본 큐슈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辛교수는 73년 모교에 부임, 임업과학연구소장을 역임하며 녹화사업과 임산물 가공에 대한 연구에 심혈을 기울여 많은 연구업적을 쌓았다.

오는 99년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목재와 펄프에 관한 세계학술회의 조직위원장을 맡은 辛동문은 「나무는 우리의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자원」이라고 강조하고 「학술대회 준비를 열심히 하면서 폐지자원의 재활용을 위한 일에 여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언어학회 창립에 큰 역할

『퇴임후 평소 즐기던 등산과 영어추리소설 읽기를 마음껏 할 수 있어 좋다』는 文교수는 「대학시절 품었던 작가의 꿈에 아직도 미련이 남아 추리소설을 써 볼 생각도 있다」고.

1958년 모교 영문학과를 졸업한 文교수는 66년 미국 인디애나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71년 모교교수로 부임했다.

文교수는 「한국영어영문학회」 「한국언어학회」를 창립, 학계 발전에 기여했으며 「재직기간동안 가장 큰 보람은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었다」고 말할 정도로 후학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文龍교수 사대·영어교육

만으셨습니다.

모교에서 학문연구와 후학육성을 위해 한평생을 바쳐온 교수 16분이 지난 2월 29일 정년 퇴임을 맞이하였다.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헌신의 삶과 그 뜻을 기리는 의미에서 이 분들의 약력을 간략히 소개한다.

진보적 독일문학 국내 소개

1956년 모교 독문학과를 졸업하고 75년 모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李교수**는 61년부터 30여년간 모교 강단을 지켜온 모교발전의 산증인이다.

독어교육과장 및 대학신문사 주간을 역임한 바 있는 **李교수**는 모교교수로 재직하며 생태학시 등 진보적인 독문학을 국내에 소개하는데 남다른 노력을 해왔다.

李교수는 『앞으로 다가올 조국 통일을 대비해 독일의 분단문학을 번역할 생각』이라며 『다음 세대를 위한 디딤돌이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약학관련 응용분야의 거목

젊은 시절부터 약학이라는 학문에 흥미를 느꼈다는 **李교수**는 1931년 함안 출생으로 1954년 모교 약학과를 졸업하고 59년 모교 전임강사로 부임했다.

66년 미국 위스콘신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李교수**는 78년부터 4년동안 약대학장, 종합약학연구소장 등을 역임하며 당시 낙후되었던 우리나라 약학 발전의 초석을 쌓았다.

『중용의 덕』을 강조하는 **李교수**는 『약학은 응용의 여지가 많은 분야』라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흥미를 가졌던 약학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연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피아노와 함께 한 50년

李교수는 1950년 모교 기악과에 입학, 1959년 졸업후 오스트리아 빈 국립 음악아카데미를 수료했다.

60년에 강사로 첫발을 내디딘 후 72년 모교교수로 부임, 음대 학생학장보 및 기악과장을 지냈으며 전공인 피아노 부문에서 술한 제자들을 양성했다.

중학교 2학년때 처음 피아노를 접하면서 이 길이 자신의 길이라고 믿고 50년 외길을 걸어온 **李교수**는 『너무 일찍 성공하려고 애쓰는 것 보다는 어려울 때를 넘기고 꾸준히 노력하는 삶의 자세를 갖자』고 당부했다.

마취과학 발전에 크게 기여

『정년을 맞으니 만감이 교차하지만 후학양성에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郭교수는 1930년 서울 출생으로 1953년 모교 의대를 졸업한 후, 68년 전남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69년부터 20여년간 모교교수로 재직해왔다.

『의학은 인간을 상대로 하는 연구인만큼 후학들이 인성 수양에 힘쓰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郭교수**는 대한마취과학회장 및 아시아 대양주 마취과학회장 등을 역임하며 마취과학 발전에 기여해 왔다.

국내의학 선진화에 공헌

『우리 의학이 선진의학에 겨룰만한 수준에 도달하는 발전과정에 미력하나마 공헌해 왔다는 것에 보람을 느낍니다』

1956년 모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63년부터 모교에서 30여년간 봉직해온 **李교수**는 대한정형외과학회장, 대한소아정형외과학회 초대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의학계 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며 94년 과학기술 우수논문상을 수상한 바 있다.

李교수는 『앞으로 의무감에서 벗어나 즐거분한 기분으로 조용히 의사의 본분인 환자진료를 계속 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초 시험관아기 출산 성공

張교수는 1955년 모교 의대를 졸업한 이래 40여년을 모교교수로 봉직하며 인구의학 연구소장, 의학연구원장을 역임했다.

산부인과 분야의 개척자로서 명망이 높은 **張교수**는 국내 최초로 시험관 아기 출산에 성공함으로써 국내 의학의 획기적인 발전을 일구어낸 장본인이다. 가족계획 홍보 등 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86년 국민훈장 목련장, 87년 서울특별시 문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의대9동기회 회장을 맡고 있는 **張교수**는 『앞으로는 동기들의 친목과 화합을 위해 좀더 시간을 투자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소아치과 발전위해 매진

『부임당시 신설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은 소아치과에 몸담아 육성하는데 작은 역할이나마 한 것이 가장 큰 보람입니다』

1931년 서울 출생인 **金교수**는 1949년 모교 치의예과에 입학해 58년 졸업,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63년 모교에 부임, 치대교무학장보를 지냈다.

金교수는 30여년간을 모교에서 학문연구와 후학양성은 물론 진료활동에 전념해 왔다.

金교수는 『앞으로 의료개방을 대비해 나름대로 전문의술을 개발하는데 남은 생을 바칠 생각』이라고 말했다.

30년간 치의학 연구에 전력

李교수는 『떠나는 아쉬움도 있지만 새출발의 설렘으로 가슴 벅차다』고 말했다.

李교수는 1950년 모교 치의예과에 입학해 55년 졸업, 68년 모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같은해 조교수로 부임했다.

치대 교무학장보를 지낸 바 있는 **李교수**는 『자신의 의지로 꾸준히 학문연구에 매달리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면서 『과거 학생과장으로 있을때 경찰서에 가서 학생들을 위해 수없이 각서를 썼던 일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고 회상했다.

(정리=安興燮기자)

李正植교수 치대·치의학



李東昇교수 사대·독어교육



李明學교수 음대·기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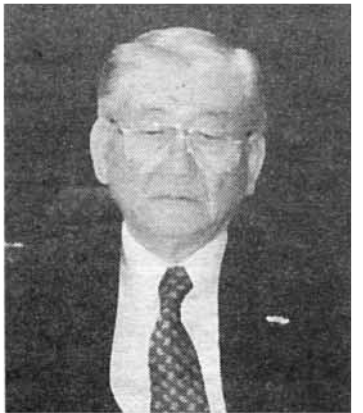
李德鎭교수 의대·의학



金鎭泰교수 치대·치의학



李相燮교수 약대·약학



郭一龍교수 의대·의학



張潤錫교수 의대·의학





康明順동문가족

독실한 기독교집안으로 공대와 인연이 많아 소설가 黃順元, 楊正秀변호사등 10여명

『잊고 지냈는데 이렇게 따져보니 일가에 동문이 꽤 많군요. 나를 비롯해서 자식들도 공대와 인연이 깊은 걸 보니 일전에 동창회에서 준 「자랑스런 기계동문상」도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康明順(46년 京城大學卒·한양대 명예교수)동문가족은 처가쪽을 합하면 서울대 출신이 10여 명이 넘는다. 더구나 단편소설 「소나기」로 너무나 유명한 黃順元선생과 동서지간이고 일제때 사법고시를 당당히 통과, 검사장까지 지낸 楊正秀(36년卒)변호사와는 처남, 매부지간이니 명문가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다.

가난한 농가의 독자로 태어난 康동문은 경성제대 이공학부를 다니면서 그 당시 경성제대 법문학부에 다니던 楊正秀, 東秀(45년 경성제대 이공학부卒)형제와 가까이 지냈다. 대학 선후배 사이기도 했고 축구선수로 활약하던 때라 운동도 함께 하며 쉽게 거리낌없는 사이가 될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자네, 내 누이동생 어떻게 생각하냐?』하고 묻는 형제의 의미 있는 질문이 계기가 되어 친구의 적극적인 소개로 지금의 부인 楊正玉여사를 만나 결혼하게 됐다.

지난 1985년 남북 화해분위기가 조성되면서 교육, 종교, 법조, 의학, 산업분야 등에서 4, 5명씩 선정해 50여 명이 함께 북을 방문하는 역사적인 순간이 있었다. 이때 고향방문단의 일원으로 평양땅을 밟아봤지만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두고 온 가족에 대한 안타까움은 조금도 사그라들지 않더라고.

『양가 모두 북에 있는 상태에서 어렵게 공부해 대학을 마쳤습니다. 졸업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는데 마침 6·25가 터졌어요.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91년 교회연에서(사진 중앙 康학장부부)

한국에 있던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별로 고생을 안했다고 봐야지. 내가 없는 동안 여자몹으로 아이들 키우고 생활하느라 고생한 아내에게 지금도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후 대우중공업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조선기계공작소를 거쳐 20여년간 한양대 교수로 봉직하며 부총장까지 역임한 康동문은 그동안 국민훈장 동백장, 은탑산업훈장 등을 수상했으며, 기능올림픽 발전의 산증인으로 우리나라에 3명밖에 없는 국제조직위원회 명예회원이기도 하다.

康동문가족은 독실한 기독교 집안으로 「정직, 봉사, 근면」을 주요덕목으로 삼고 있다. 슬하에 3남2녀를 두었는데 형제간에 우애가 남달라 온가족이 모여 골프시합을 자주 갖는다.

장남 康勳植동문은 69년 모교 기계공학과를 나와 「Value Technique」사장으로 있는데 사실 의학을 전공하고 싶어 했다

고 한다.

『밀로 동생이 줄줄이 있는데다 교수 봉급에 살림살이가 뵈너지 않습니까. 뭐라고 하지 않았어도 집안사정을 생각해선 진로를 바꾼 것 같아요. 자식들중에 그림이나 음악에 소질이 있는 아이도 있었지만 그 뒷바라지를 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거의 불가능하졌더군요. 큰아이가 공대에 들어가면 아버지가 쓰시던 책이랑 제도기를 함께 쓸 수 있으니 얼마나 좋나구 하더군요. 못내 아쉬워하면서도 티를 내지 않던 큰아이 마음씀씀이가 대견했습니다』

한양대 건축학과를 나온 차남 康榮植씨는 신화건설(주)상무로 있고 삼남 康慶植동문은 82년 모교 경제학과를 나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흥원제지이사로 있는데 부인 洪淳慧동문 역시 84년 모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서울대인으로 현재 서울여대 교수로 있다.

장녀 康雲英씨는 이화여대를 나왔는데

만사위인 崔明郁동문이 67년 모교 농대를 나와 제일제당 상무로 있고 차녀 康銀英동문은 섬유공학을 전공하고 80년 모교 대학원을 나와 현재 특허업무를 보고 있다.

한편 큰처남의 장남인 楊森동문이 61년 모교 문리대를 나와 한국일보사에 몸담고 있으며, 작은 처남의 장남인 楊枝元동문은 73년 모교 화공학과를 나와 KAIST교수로 있다. 차남 楊枝靑동문도 모교 공대를 나와 국토개발연구원에 몸담고 있는 서울대인이다.

또한 黃順元선생의 장남인 黃東奎동문은 61년 모교 문리대 영문학과를 나와 모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모교교수로 있다.

평생을 학자로 살아온 康동문과 헌신적으로 내조에 힘써온 楊正玉여사의 소탈한 모습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그리고 명예를 지킬 줄 아는 서울대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다. (志)



新刊

■어느날 갑자기 —吳應瑞 自敘傳



지구 환경 대학원 한국 총장직을 맡고 있는 吳應瑞(47년 齒大卒) 동문의 의 사로서 행정 고시에 수석합격, 보건사회부에서 근무하기도 했던 얘기를 비롯해 40대 초반 서울시 치과의 사회장 시절과 67년 미국으로 이민, 뉴욕 한국의료원 개원, 대한체육회 이사, 서울 63로터리 클럽 회장 시절 등의 이야기를 관련 인사들을 거명하며 재미 있게 담았다. (세광음악출판사刊·값 12,000원)

■法과 政治 —金哲洙 著



40여년 간 헌법을 연구 해 온 모교법 대교수인 金哲洙(56년 法大卒·본보 논설위원) 동문이 입헌주의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사명감에서 헌법에 관한 논문들을 모아 책을 펴냈다.

金동문은 머리말에서 민주주의의 정착은 헌법과 법을 통해 해야 하며 이를 무시한 민주 개혁은 독재화의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하고 이 책이 조국의 입헌주의와 법치주의 정착에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교육과학사刊·값 21,000원)

■갓쓰고

자전거 타는 정치 —金基道 著



오랜 정치 기자 생활과 정 활동을 펼쳐 온 金基道(72년 新大院卒·국회의원) 동문이 정치 현실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정치를 위한 제언을 담은 정치 비평 수필집을 출간해 화제가 되고 있다.

金동문은 언론·공직을 거친 학구파로 「과학적 선거전략」 「정치 커뮤니케이션 실제」 「정치선전과 심리전략」 「윈스턴 처칠가의 숨겨진 이야기」 등의 역·저서가 있다. (고려원刊·값 7,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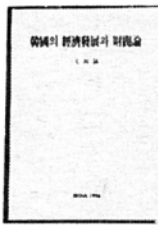
■한국현대교육철학 —韓基彦 著



모교 명예 교수이며 기초주의 연구원장직을 맡고 있는 韓基彦(49년 師大卒) 동문이 광복50주년을 기념해 기초주의의 탄생과 성장을 주제로 한 권의 책을 내놓았다.

본문 15장, 별편 2부로 구성된 이 책에서 韓동문은 한국의 현대교육철학으로서 기초주의를 이론·체계화하려고 했다. (도서출판夏雨刊·값 15,000원)

■韓國의 經濟發展과 財閥論 —文尙鎬 著



학자이며 경영인인 文尙鎬(55년 師大卒·正南(주) 회장) 동문이 분석한 재벌의 실체와 진로를 밝힌 3백76쪽의 대작.

文동문은 이 책 속에 그룹별 21세기 경영전략을 상세히 밝히고 몇몇 창업주들의 약력까지 첨부함으로써 한국재벌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했다. (世經社刊)

公演

■춤이 있는 피아노 독주회 —4월 14일 호암아트홀

모교 음대 교수로 재직중인 중견 피아니스트 金正圭(60년 音大卒) 동문의 새로운 시도, 「춤이 있는 피아노 독주회」.

유럽과 미국 무대에서 독주회 및 오케스트라협연으로 활발한 음악활동을 펼쳐온 金동문은 귀국후 KBS교향악단, 서울시향, 부산시향을 비롯해 국내 우수 오케스트라와 다수의 협연을 가졌다.

■徐世源바이올린독주회 —4월 10일 호암아트홀

오스트리아 케른트너 주립음대 교수로 재직중이며 유럽을 무대로 오케스트라협연과 실내악 등 활발한 연주활동을 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徐世源(82년 音大入) 동문의 독주회.



■金善姬바이올린독주회 —4월 7일 예술의전당 화센터

충남대교수로 재직 중인 金善姬(81년 音大卒) 동문은 서울 바로크 합주단 단원으로 실내악 연주활동과 함께 광주초청 독주회 등 수차례의 독주회를 가진 바 있다.

■金在美 대구시향과 협연 —4월 18일 예술의전당

지난 94년 10월에 모교 음악대학 초청 독주회를 비롯해 수차례의 연주회를 가진 바 있는 金在美(88년 音大卒) 동문이 교향악축제에서 대구시향과 협연을 한다.

(정리=安興變기자)

화제의 동문

설치행위미술가

安畢妍 동문

우리 정서 담은 작품, 해외서 호평



『제가 종가집 맘머리예 다 12살짜라 딸아이와 다섯 살바기 아들을 둔 두 아이의 엄마라고 하면 다들 놀라더라구요』

여성이 예술가로서의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면 당연히 포기했으리라 믿는 가정꾸리기. 이에 대해서까지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 애쓰는 설치행위미술가 安畢妍(84년 美大卒) 동문.

安동문은 서구의 미술사조인 설치작업을 하면서도 우리적인 소재를 이용, 우리의 정서를 담아내고 있는 작가이다. 프랑스 르몽드誌 평론가 미셸 누르자니의 눈에 띄어 지난 95년에는 파리 르몽드라르 갤러리에서 「만화경」이라는 주제로 개인전을 열기도 했다. 당시 LE FIGARO, VOGUE誌 등이 安동문의 REVIEW를 했을 정도로 호평을 받았고 독일과 일본 등

내마음의 詩

獨島*

朴英子(50년 師大卒)시인

한 점 혈육으로 가지 끝에 매달리듯
오늘 또 깃발보다 싱싱하게 살아 남아
風向을 살갓에 비비대는 東海의 뽀얀 힘줄.

갈매기 끼룩댄다 등불 걸어 놓아야지
꺼먼 밤이 밀리는 밀리는 그 포효 앞에서
北關의 눈발을 닮은 노래하는 섬이 하나.

*세계시문학(WORLD POETRY 95) 제13집에 실려있는 朴동문의 대표작

보지 못할 때도 많아요』

유리며 아크릴, 형광색지, 우레탄 등 安동문이 사용하는 재료들은 모두 화려하다. 또한 우리 고유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작업도 좋아한다. 단청의 은은한 색채가 좋아 1년 동안 채색법을 배웠고, 「도박」 퍼포먼스 이전에는 굿하는 소리를 1년 가까이 배웠다. 앞으로의 작업에는 컴퓨터 그래픽도 이용할 계획이다.

安동문은 관객이 편안하게 보고 느끼고 흠뻑 빠져들 수 있는 작업을 하는 것이 설치행위미술가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방송일을 하는 남편도 아직은 安동문의 퍼포먼스를 보러오지 않았다고 한다. 작품전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이하기까지한 행위를 하는 安동문의 퍼포먼스를 달갑게 생각지 않는 탓이다.

관객을 놀라시키고 끊임없이 자신을 탐구해가는 예술가로서의 면모와 자생력 강한 생활인의 모습을 함께 지닌 安동문. 요즘도 4월 9일의 LG 패션 신사옥 개장 행사에 선보일 작품 준비와 해외 전시회 준비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熙)

(작가약력)

- △1984년 서울대 미대추 동 대학원추
- △1987년 「표출」 조각 10인전
- △1990년·초대 개인전 「넋」
- △1993년 제2회 개인전 「깊은 거울」
- △1994년 제3회 개인전 「도박」
- △1995년 광주비엔날레 제4회 개인전 「만화경」
- 파리, 일본, 독일 등 순회전

“동문여러분의 신속한 연회비납부는 모교와 동창회 발전의 지름길입니다”

〈理事·一般:96년 1월 6일~96년 3월 15일〉

이 사

◇經營大學

▲조규근 77 현대증권부장

◇工科大學

▲강대욱 69 LG전선이사
▲강병희 61 인하대교수
▲권영선 55 유성상사대표
▲김경화 53 청호인터내셔널
▲김병기 69 쌍용양회공업이사
▲김일두 64 코오롱ENG대표
▲김정근 61 비지니스서비스
▲김천욱 59 연세대교수
▲김호근 54 남서울산업대총장
▲민석홍 58 쌍용양회고문
▲박찬모 58 포항공대교수
▲손진영 75 조인ENG대표
▲오창석 56 TPM컨설팅위원
▲이면기 68 선경인더스트리
▲이원국 52 (주)대원대표
▲이재은 65 한국기술개발대표
▲이지형 71 신양현미유대표
▲임길생 59 동북건설대표
▲장철환 59 안성농원회장
▲정재은 61 조선희텔명예회장
▲제해현 69 삼양중기기술이사
▲조래승 60 아시아자동차
▲차옥선 56 한양대교수
▲최춘환 59 명지대대학원장
▲한중서 59 현대중공업부사장
▲허영섭 64 녹십자대표
▲홍재학 59 前항공우주연구소

◇農科大學

▲김성수 67 서울대교수

▲박정수 69 대전국토관리청
▲조용철 48 농지개발연구소

◇文理科大學

▲강정문 71 대흥기획사무
▲고석운 50 변호사
▲김성배 63 KBS문화사업단
▲박경석 59 前국회의원
▲박봉식 55 부산외국어대총장
▲박지동 67 광주대교수
▲손봉호 61 서울대교수
▲유영익 60 한림대부총장
▲이영복 66 한국원자력연구소
▲이원홍 52 간행물윤리위원회
▲장중웅 68 한국철강협회전무
▲채희완 74 부산대교수
▲최병현 67 서울대교수

◇美術大學

▲조명형 65 단국대교수
▲홍성문 64 前영남대교수

◇法科大學

▲강봉수 65 서울고법부장판사
▲권재진 76 부산지검공안부장
▲김영상 62 하나銀상임감사
▲김우성 68 울산대교수
▲김진수 77 부산지법판사
▲남윤호 58 변호사
▲박용일 73 변호사
▲박일룡 63 경찰청장
▲박찬주 76 변호사
▲서용은 61 변호사
▲석동준 68 대구지법형사과장
▲송하식 68 지적재산권서비스
▲육종석 64 한화종합화학전무

▲이경배 66 제일화재해상보험
▲이선하 78 동부레미콘과장
▲이용범 62 청기통상대표
▲이현승 71 서울가정법원판사
▲조일웅 63 한화그룹전무
▲조준웅 67 서울지검동부지청
▲차정일 66 변호사
▲최세관 59 감사위원
▲하 옥 75 통일원정보분석실
▲현희남 63 동아생명보험전무
▲황영선 59 변호사
▲황주명 62 변호사

◇師範大學

▲김동균 70 내셔널프라스틱
▲박수용 55 진주교육청교육장
▲이완기 48 前도이취빙크고문
▲이인규 55 진성여중교장
▲홍승직 49 아세아사회과학원

◇商科大學

▲권영부 64 세우여행사사장
▲권영인 61 한국바이오믹스
▲김선길 52 前제천교육장
▲김용수 48 하인즈커피믹스
▲김유택 49 영창인물공장대표
▲김종락 63 공인회계사
▲박가경 59 금강종합건설회장
▲박대평 59 대진개발금융이사
▲송세창 67 나산종합건설대표
▲이영규 65 경남대교수
▲이한렬 68
▲전영배 68 대성전기공업감사

◇獸醫科大學

▲서정범 60 제일화학대표

◇藥學大學

▲김철호 72 나드리화장품이사
▲김태현 75 부광약품이사
▲김홍집 64 대생약국
▲엄태운 63 한국원자력연구소
▲정한수 63 동아약국
▲홍은기 61 성심약국약사

◇醫科大學

▲김세경 45 한국병원과장
▲노수환 75 내과의원장
▲박종명 76 산부인과의원장
▲방영주 79 서울대교수
▲방장훈 74 산부인과의원장
▲백성룡 53 백성의원장
▲이신애 79 국립경찰병원
▲이훈용 78 내과의원장
▲장기현 71 서울대교수
▲최용목 67 경희대교수

◇齒科大學

▲권종진 74 고려대교수
▲김화규 67 치과의원장
▲류재훈 69 유치과의원장
▲문정광 67 치과의원장
▲신용환 62 신화치과의원장
▲어수철 55 어치과의원장
▲이시우 65 이치과의원장
▲장섭창 77 장치과의원장
▲장영정 66 치과의원장
▲정하익 70 치과의원장
▲최병식 62 선일치과의원장
▲한건웅 67 한치과의원장

◇大學院

▲안무혁 62 한국발전연구소

◇經營大學院

▲문국현 77 유한김벌리부사장
▲장만기 68 리더쉽매니지먼트
▲조정희 71 前전국대사무국장

◇行政大學院

▲도명정 73 서울시기획관리실

◇環境大學院

▲이평재 75 한국지하공간협회

일 반

◇人文大學

▲민동홍 61 ▲이화연 88
▲하성식 88

◇社會科學大學

▲권영종 88 ▲김기영 79
▲김승현 79 ▲김 영 83
▲김희철 88 ▲손문호 80
▲심 섭 80 ▲유후규 77
▲이만수 80 ▲임주환 78
▲정하석 69 ▲조기승 77
▲최병준 80

◇自然科學大學

▲김권도 89 ▲김부열 76
▲서의훈 78 ▲유영만 88
▲이인근 88 ▲정명관 87
▲차재혁 87

◇家政大學

▲류지수 87 ▲이미식 77
▲전영숙 82 ▲최연신 77

◇經營大學

▲김동훈⁸⁵ ▲노희용⁸⁶
▲이대규⁸⁹ ▲이동기⁸⁰
▲조재호⁷⁸ ▲허원구⁸⁹

◇工科大学

▲강상구⁷¹ ▲권원태⁸²
▲김경수⁷⁰ ▲김경진⁶⁵
▲김광곤⁷⁸ ▲김성대⁷⁷
▲김성수⁷⁸ ▲김성준⁷⁰
▲김성준⁸⁵ ▲김원명⁶⁵
▲김유성⁵⁴ ▲김자영⁷⁸
▲김재환⁸⁵ ▲김형배⁸⁹
▲김효섭⁸¹ ▲김홍근⁸⁰
▲남상국⁶⁹ ▲문원모⁸⁷
▲박구원⁷³ ▲박병덕⁸⁸
▲박응대⁶⁷ ▲박종근⁷⁹
▲박진우⁷⁴ ▲박희수⁵⁸
▲변남석⁸⁶ ▲서승구⁴¹
▲서창희⁵⁶ ▲설재훈⁷⁸
▲성천경⁷⁰ ▲송진억⁸⁹
▲신동준⁸³ ▲안민주⁸⁸
▲양승진⁶² ▲양태은⁷⁰
▲염희택⁴⁹ ▲오승은⁷⁹
▲원성필⁷⁹ ▲유병세⁶⁷
▲유병태⁸⁰ ▲유한근⁶⁹
▲윤지규⁵⁸ ▲이광형⁷⁸
▲이규설⁶³ ▲이덕수⁸⁷
▲이덕준⁶² ▲이동정⁷⁵
▲이봉환⁷² ▲이상구⁸⁵
▲이성오⁵⁶ ▲이완수⁸⁵
▲이용벽⁸¹ ▲이의남⁶⁹
▲이임택⁶⁵ ▲이재성⁴⁶
▲이재형⁶⁹ ▲이종락⁷⁴
▲이철형⁶⁴ ▲이호인⁶⁵
▲이후철⁶⁷ ▲임승근⁶⁷
▲임승빈⁷¹ ▲장형대⁷⁴
▲전근주⁷⁴ ▲정균양⁷²
▲정성균⁸² ▲정성훈⁸⁷
▲정영균⁶⁷ ▲정완수⁶²
▲정익주⁸⁶ ▲정인상⁶⁹
▲정태규⁶⁹ ▲조경환⁷³
▲조정수⁶¹ ▲최명경⁶⁹
▲최민성⁷⁰ ▲최병두⁵²
▲한경중⁸² ▲허원욱⁷⁷
▲현명효⁷³ ▲황일인⁶³
▲황철성⁸⁷ ▲황희연⁷⁹

◇農科大学

▲강영현⁷⁶ ▲공영호⁸³
▲김규식⁷⁵ ▲김옥생⁶⁷
▲김종훈⁷² ▲김창수⁸⁹
▲김필식⁶⁵ ▲박명규⁵⁷
▲박병련⁵⁶ ▲박삼선⁸⁴
▲박신호⁵⁸ ▲박영운⁸⁰
▲우상호⁶⁵ ▲원후식⁶²
▲윤규식⁸⁸ ▲이기창⁵⁵
▲이준현⁷⁷ ▲이창구⁷⁰
▲장연태⁶⁷ ▲주석화⁸⁵
▲한동욱⁵⁶ ▲한상익⁶³

◇文理科大學

▲고영근⁶¹ ▲고영소⁶⁰
▲고윤석⁵⁴ ▲김명환⁶⁵
▲김상복⁶³ ▲김영호⁴⁹
▲김원조⁵¹ ▲김창수⁶⁷
▲남대국⁶⁷ ▲노계원⁶⁴
▲박성주⁷⁴ ▲박주기⁶⁴
▲박화진⁶⁹ ▲방경조⁶⁵
▲백수웅⁶⁹ ▲백용균⁵⁰
▲서건일⁶⁴ ▲송덕희⁵⁶

▲신대철⁶⁷ ▲신영철⁶¹
▲심재규⁶² ▲우병규⁵⁵

▲이계환⁷¹ ▲이민우⁷³
▲이병환⁶⁶ ▲이조영⁸⁹
▲임자혜⁷⁵ ▲전영철⁶⁵
▲정계섭⁷⁵ ▲정태훈⁵³
▲정행원⁶³ ▲채상식⁷⁴
▲최준수⁶⁵ ▲한기욱⁶⁸
▲한정우⁵⁵ ▲함태혁⁶⁸
▲황원섭⁶⁴ ▲황활원⁶³
▲황흥환⁶⁰

◇美術大學

▲김해림⁶⁵ ▲문학진⁶²
▲박근호⁵⁷ ▲박병영⁶¹
▲박승호⁸⁷ ▲박정호⁵⁵
▲박지혜⁸⁹ ▲손문자⁶⁶
▲연경자⁶³ ▲이강소⁶⁵
▲이성도⁸¹ ▲진송자⁶⁸
▲최성숙⁶⁸ ▲한풍렬⁷⁰
▲홍정희⁵⁷

◇法科大学

▲강찬우⁸⁵ ▲고의영⁸¹
▲구자만⁵⁸ ▲김순영⁵⁰
▲김진태⁷⁵ ▲김해룡⁶⁰
▲노영재⁸² ▲박주환⁶⁷
▲박찬식⁸⁹ ▲백인창⁷⁴
▲변희찬⁸² ▲손양근⁸⁸
▲송두환⁷¹ ▲양희종⁷²
▲유중식⁷² ▲유현상⁶⁵
▲윤근웅⁵⁹ ▲이광수⁸⁷
▲이상영⁶⁸ ▲이영완⁶⁶
▲이종환⁶³ ▲이지우⁶⁴
▲전성희⁸³ ▲정병대⁸²
▲정승진⁸⁸ ▲정영일⁷⁷
▲정인창⁸⁷ ▲정준영⁸⁹
▲최부휴⁸³ ▲최우식⁶³
▲홍순영⁴⁴

◇師範大學

▲김명숙⁶⁵ ▲김수신⁶⁴
▲김수형⁶⁵ ▲김영석⁶⁸
▲김후종⁵¹ ▲남호범⁶⁹
▲노영석⁷⁷ ▲박종률⁷⁰
▲박찬종⁷⁷ ▲반진호⁸⁰
▲심낙기⁵⁴ ▲안온신⁵⁵
▲오상록⁵⁶ ▲이상재⁶⁵
▲이인화⁵⁷ ▲이점숙⁴⁴
▲이희숙⁶⁵ ▲인병식⁶⁵
▲정상섭⁸⁸ ▲최남열⁴⁴
▲한만성⁸⁰ ▲한상준⁵⁰
▲한인수⁶² ▲황응연⁵⁴

◇商科大學

▲구자홍⁷² ▲권영재⁶⁷
▲김동여⁵⁹ ▲김동우⁶⁹
▲김범수⁶¹ ▲김세우⁵⁹
▲김영진⁷¹ ▲김용빈⁷²
▲김효석⁷² ▲박권상⁵²
▲박명근⁶⁹ ▲박종형⁷⁵
▲송인덕⁶⁹ ▲심재식⁶⁴
▲염 발⁶⁵ ▲육내운⁶⁵
▲이근석⁶⁵ ▲이기인⁶⁹
▲이노창⁷⁰ ▲이재웅⁶⁶
▲이철근⁶⁵ ▲전영덕⁷¹
▲전철환⁶¹ ▲정세진⁵⁷
▲정진형⁶¹ ▲정해운⁵²
▲정형배⁶⁸ ▲조정호⁶⁰
▲한기룡⁷⁴

◇獸醫科大學

▲김기수⁶⁷ ▲김대중⁸⁵
▲김인영⁶⁵ ▲김진영⁶⁴
▲박 영⁶⁵ ▲이경선⁷⁷
▲이승용⁷⁹ ▲이신수⁷⁵
▲이우영⁶³ ▲임원배⁵⁶

◇藥學大學

▲공영운⁶⁴ ▲김옥선⁶⁹
▲문정자⁶⁷ ▲유재하⁸²
▲이원희⁷² ▲이정옥⁶⁶
▲최진곤⁸¹

◇音樂大學

▲김영률⁸⁰ ▲박희정⁸⁹
▲송명익⁴⁸ ▲유은숙⁷⁷
▲이상녕⁷² ▲이영자⁵⁹
▲조길자⁶⁶ ▲조현수⁸⁶
▲최희순⁶⁹ ▲홍성모⁸⁸

◇醫科大學

▲강석진⁸¹ ▲김명중⁶⁶
▲김봉인⁷¹ ▲김영태⁸⁸
▲노창준⁸⁹ ▲류백렬⁸⁸
▲박정덕⁸⁶ ▲박평순⁵⁵
▲배은정⁸⁷ ▲배진기⁶⁷
▲안 혁⁷⁷ ▲여태오⁵⁷
▲윤형진⁸⁶ ▲이춘호⁸¹
▲정성량⁷⁸ ▲차인식⁷⁹
▲최진양⁸⁷ ▲허 용⁵⁹

◇齒科大學

▲권태호⁸³ ▲김도운⁵⁵
▲김영수⁶¹ ▲김우성⁶⁸
▲김천식⁷⁷ ▲박길용⁸⁰
▲서창환⁶⁹ ▲성길현⁸¹
▲신언일⁷⁷ ▲오해결⁵⁷
▲윤훈기⁸⁸ ▲이기식⁷⁰
▲이명도⁸² ▲이용희⁸⁵
▲이주봉⁵⁹ ▲이재형⁸⁷
▲전광익⁶⁹ ▲정인교⁷⁵
▲정호선⁸⁶ ▲한세현⁷¹
▲한우석⁸⁴

◇大學院

▲김웅서⁸⁴ ▲모수미⁷⁵
▲이남형⁷³ ▲이용욱⁷⁸
▲임경순⁶¹

◇經營大學院

▲구자일⁶⁸ ▲이한기⁶⁸
▲최갑석⁷²

◇教育大學院

▲정병관⁶⁹

◇保健大學院

▲김순덕⁸³ ▲백연수⁶⁵

◇新聞大學院

▲김유원⁷⁴ ▲김이환⁷³

◇行政大學院

▲박도갑⁷³ ▲사병성⁶³
▲장흥렬⁶⁵

◇環境大學院

▲이강건⁷⁸

국민제휴카드 사업 결실



文貞奎(56년工大卒)
남흥건설회장



金宗根(58년工大卒)
범아중합건축대표



嚴鶴善(61년法大卒)
KET인터내셔널대표



金正煥(65년商大卒)
인천투자금융사장



白伊鎬(67년工大卒)
서현건설대표



金慶漢(68년文理大卒)
(주)태경대표



朴閔泰(72년工大卒)
태광화학공업대표

동창회 재정확충을 위해 본회가 94년 9월부터 실시해온 「총동창회 국민신용카드」사업이 동문 여러분의 참여로 최근 개인 1만9백여매, 법인 2백16매 발급이라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동문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지면을 통해 카드 발급자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 회원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발급기간: 96년 2월 1일 ~ 29일

법 인

◇(주)문학과 지성사 金炳翼(61년文理大卒)=2좌

◇한일홍산(주) 裴億萬(58년法大卒)=2좌

개 인

◇人文大學

▲김덕출⁸⁵

◇自然科學大學

▲정현미⁸⁶ ▲김대원⁸⁸

◇經營大學

▲박종성⁸⁸ ▲이장우⁸⁹
▲정인철⁸⁶

◇工科大学

▲김경환⁸⁹ ▲김한준⁸⁷
▲남창우⁸⁷ ▲박동균⁸⁹
▲박광일⁸⁷ ▲서정인⁸⁶

▲서정훈⁵⁵

▲오성택⁸⁹

▲이성우⁶³

▲차준석⁸⁰

▲최성수⁸⁸

◇農科大学

▲고재영⁸⁰

▲서민환⁸⁵

◇文理科大學

▲김대만⁶⁰

▲유종하⁵⁹

▲이덕길⁶⁶

◇美術大學

▲김성희⁸⁶

◇法科大学

▲김영배⁷⁰

▲노부호⁷⁵

▲박영철⁸⁶

▲오명섭⁸⁸

▲이희권⁶⁷

▲김용준⁵⁹

▲류상열⁶⁴

▲송기춘⁸⁴

▲오윤덕⁶⁵

▲정해주⁶⁸

◇師範大學

▲김해란⁶⁶

▲허용수⁷⁵

◇商科大學

▲김종국⁶⁷

▲조근목⁶¹

◇獸醫科大學

▲강인구⁶⁴

▲김종석⁶⁵

◇藥學大學

▲강명희⁷⁷

▲심규장⁷²

◇音樂大學

▲류동열⁸⁴

◇齒科大學

▲김학엽⁷³

▲유기환⁷⁰

▲정성일⁸⁶

◇保健大學院

▲홍성철⁷⁵

▲홍정선⁷⁶

◇環境大學院

▲강덕원⁸⁷

▲유덕률⁸⁷